

봄

2013년

111호

# 고대문화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언/론 고대문화편집위원회



## 내몰리다

2013. Spring vol.111

덕업만화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언/론 덕업만화편집위원회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쓰신 모든 노동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www.komun.net

고대문화 2013년 봄호(통권 111호) **덕업만화** 고대문화편집위원회/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7가번지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3층 136-701 | **TEL** 927-7197 **인쇄** 용재인쇄 **디자인** 디자인여백

고대로 보는 사진



어서 와~



고대문화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고대문화는 학우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관심있는 주제를 다룬 글이나 학내외의 일에 대한 생각을  
A4 2매 안팎으로 보내주세요.  
만화, 만평 등 다양한 형식들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komun@komun.net](mailto:komun@komun.net)  
문의 | 02-927-7197, 010-9797-8317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5만원)을 드립니다.



## 고려대학교는 처음이지?

글, 사진 | 예서



# 고대문화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언/론 고대문화편집위원회

봄

2013년

111호

## 목차

고보사	1
편집실에서	4
학내기획	6 봄, 그리고 새내기
특집	16 대학, 학생, 교육 내몰리다
	18 학생이 없는 학생회, 무엇을 말하는 학생회?
	28 소비자적 교육투쟁을 넘어서
	38 한국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언
사회	46 19년 동안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학내기획	56 새터와 여성주의의 만남, 여성주의와 우리의 만남
중간화보	72



언론	80 “사람을 향하는”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를 만나다
드라마평	62 캔디는 죽지 않는다. 다만, 조금 달라질 뿐이다
만화평	96 이왕이면 만화를 더 잘 읽기
사회	102 누가 내 폰 값을 먹었을까
노동	108 “오겐키데스까? 와타시와 겐키데쓰”
평가회	88 독자와의 만남
세상보기01	116 평범한 노동자의 세상을 꿈꾸다
세상보기02	118 ‘X같은 CJ의 문화독점’
편집후기	120



편집장 시웅 (법학 07)  
 편집위원 령선 (환경생태공학 10)  
 윤희 (철학 09)  
 수습위원 보영 (국문 09)  
 예서 (정치외교 10)  
 하늘 (영어교육 10)  
 혜진 (철학 12)  
 희재 (사회 12)

고대문화 통권 111호  
 역은곳 고대문화편집위원회  
 전화 02-927-7197  
 이메일 komun@komun.net  
 홈페이지 http://www.komun.net  
 페이스북 고대문화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 학생회관 3층  
 펴낸날 2013년 3월 7일  
 디자인 여백 2279-9631

<고대문화>에 실린 기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

## 고대문화를 집어든 당신에게

“고대문화 대체 왜 봐요?”

독자 여러분한테 정말 묻고 싶었던 말입니다. 고려대학교 공식 교지이기 때문에, 그 공식성 때문에 마치 중고등학교 때 학교 문집처럼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캠퍼스투어 온 학생들이나 수시 때 학부모님들도 안 가져가면 큰 일 날 것처럼 챙겨가더라고요. 하지만 공식 잡지이기 때문에 읽는 건 정중히 사양하고 싶네요. 그런 외부적 형식적 권위 때문이 아니라, 내용이 좋아서 읽고 싶다는 게 저희 고대문화 편집위원회의 마음입니다.

그 내용을 좋게 할라고 오늘도 편집실 불 켜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대문화는 고려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 운명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 했습니다.

‘아이건 아닌데’

‘사는 게 왜 이래 팍팍하냐’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뚜렷하게 잘 들리다가, 또 어느 날은 희미하게 잘 안 들리고. 그래 그거 귀 기울여서 모아내보겠다고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낸 게 이 책입니다. 때로는 분노하다가도 때로는 순응하고 마는 모순적인, 우리 개개인 속에 흩어져서 존재하는 반역의 정서를 긁어모아서 선명히 응고시켰습니다. 2013년 봄호 고대문화 111호.

이 책에서 부디 당신이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 세상이 한번도 물어봐주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문화는 그것을 위한 책이니까요.

그리고 돈도 내잖아요? 3천원씩. 돈 낸 만큼 좀 가져가세요.

P.S. 세종캠퍼스에 그동안 소홀했네요. 이번에 봄호 들고서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장 시웅



# 봄, 그리고 새내기

## 새내기인터뷰

명선 | 편집위원 | lalilulelu@nate.com

희재 | 수습위원 | acs6061@naver.com



봄이다. 캠퍼스 곳곳에 한창 싱그러움이 묻어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려대학교 13학년 새내기들이 있다. 새내기들은 그동안 대학이라는 공간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그려왔을 것이다. 고대문화편집위원회에서는 이번 새내기 인터뷰를 통해 새내기들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대학 생활에 대해 어떤 상을 그리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이라는 특집 주제에 맞추어 새내기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목표의식을 설정하고 대학에 입학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고려대생들이 가진 생각과는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박종길  
(인문학부 13)

### 고대문화(이하 '꼬') 고대 합격 확인하고 어땠어요?

**종길:** 기뻐는데 합격을 확인했을 때 서운한 게 있었어요. 고대가 너무 도도해요. 제가 정시 나군으로 성대 경영도 붙었거든요? 성대는 합격 확인하는 페이지에서 'We are the champion' 노래랑 플래시가 나오고 합격하고 일주일 있다가 상자가 와요. 합격증이 있고 볼펜이랑 삼성 장학금 카드 같은 게 들어있는 패키지에요. 그런데 SKY부터는 그런 거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 역시 우리가 찾아오는 대학이니까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꼬: 고등학교 생활은 힘들었어요?

**종길:** 아무래도 3학년 때 가장 힘들었죠. 그때 '피바다'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께서 계셨어요. 나이 많은 선배들도 누군지 다 아는 선생님이셨는데 담임이 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반에서 일등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무조건 명문대에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뻑세게 관리하셨어요. (종길씨만요?) 네. 저만요. 이등부터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갈굼 당하는 것도 힘들었고, 근데 그것보다도 친구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 때문에 견디기 너무 어려웠어요. 합격 발표 전까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보고 있었고 선생님은 너 아니면 진짜 SKY 갈 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셨으니까. 근

데 고대 와서 다행이에요. 친구들끼리 사이는 좋았는데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아마 절고깝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꼬:** 담임선생님은 그랬군요. 그러면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는 어땠어요? 자사고면 특히 학생들 대학을 잘 보내려는 자사고만의 시스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종길:** 저희는 일 학년 때부터 문.이과를 나뉘었어요. 그리고 일 학년 때는 수학만 매달 월례 고사가 있었어요. 그 월례 고사가 내신에 포함돼요. 매달 일주일밖에 놀지 못하고 월례 고사 끝나면 바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고 그랬어요. 뻑세죠. 그리고 등록금도 비쌌어요. 분기당 거의 시립대 등록금 110만 원? 그래도 남 준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한테 다 남았다고 봐요. 아 그리고 강제야자를 했는데 '밀레니엄'이라고 상위 5% 정도 뽑아서 그 애들만 다른 방에서 공부할 수 있게 했어요. 멘토링이라고 대학 잘 간 선배들이랑 연결해줘서 공부시키고 학교에서 자리 만들어주고... 그런 게 시스템이라 하면 시스템이었죠.

**꼬:** 지금 고등학생들은 다 대학 가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거 같아요.

**종길:**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프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최종학력이 중요한 거니까 다들 열심히 피 터지게 해야죠. 요즘 대학은 취업을 위해 가는 게 돼버렸잖아요. 슝스한 얘기이긴 한데...

**꼬:** 그러면 대학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종길:** 학년마다 다른 것 같아요. 1, 2학년 때는

사람 만나고 고등학생 때까지 입시 공부하느라고 못했던 활동들 하고 3, 4학년부터는 앞으로 사회 나가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간?

**교:** 그런 건 주위에서 들은 거예요?

**종결:** 들은 것도 있고 제가 뉴스나 주위 사람들 보면서 느낀 거예요.

**교:**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것 말고 이상적인 대학의 상은 어떤 거예요?

**종결:**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점수로 여기서부터 심리학과 여기서부터 사회학과 이렇게 나누지 않고 또 학점 잘 받으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는 버리고 일부러 학점 잘 나오는 강의만 듣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인문학 관심 있는 사람은 인문학 공부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여긴 대학교잖아요.

**교:** 원래 고대 오고 싶었어요?

**종결:** 연고대 둘 중 하나요. 지금은 당연히 고대죠^^ 연대보다 고대가 아무래도 단결력도 좋고 문화가 더 좋잖아요. 지금은 고대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교:** 아무래도 고대나 연대하면 학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학벌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종결:**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방대 나온 사람들도 충분히 다 재능있고 서울 명문대 나온 사람들보다 더 재능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대 나

온 사람 백 명이랑 명문대 나온 사람 백 명 중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쪽은 명문대 쪽일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모든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시간이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재능 있는 사람이 속해있을 확률이 높은 집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학력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학벌주의가 생기는 거라고 봐요. 타파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땐 타파는 안 될 거 같아요. 나중에 삼십 년 뒤에도 여전히 저 고등학생 때처럼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려고 있겠죠.

**교:**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는데요. 종결씨가 예상하기에 고등학교랑 대학이랑 뭐가 제일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종결:** 어... 자유? 공부나 노는 거나 모든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되죠. 출석 안 해도 교수님이 불러서 '너 왜 안 오니' 이렇게 해주지도 않잖아요. 그니까 아무래도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약간 졸고 있어요. (폭주할 거 같아서요?^^) 네. 막 첫 교시 다 깨고...

**교:** 대학생활에서 제일 기대되는 건 어떤 거예요?

**종결:** 입실렌티하고 고연전이요. 또... 다른 대학교 학생과의 풋풋한 미팅?^^

**교:** 그럼 제일 걱정되는 건요?

**종결:** 학점이에요. 제가 학부생인데 학점 때문에 원하는 과를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이 예약된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교:** 선배들도 몇 명 만나보고 했을 것 같은데, 대학교 학생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나요?

**종결:** 학생회 활동을 하는 선배를 본 적이 있는데, 멋있어요. 다들 자기 시간 할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보면 대단하단 생각도 들어요. 이미지는...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아직 제가 입학울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간 '투쟁' 하는 이미지도 있어요. 등록금 관련 현수막 보면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고려대학교 캉패학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데 이런 것 보면 고등학교 때랑은 달리 실제로 정치랑 연결되어 있고 사회이슈랑 직결된 거니까. 뭐가 더 대단해 보이는 게 있어요. 괴리감도 느껴지지만,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존경해요. 등록금 인상반대도 그렇고. 그런 거도 하지 않아요? 고대 청소 노동자분들 지지하는 활동이요. 그런 이슈에도 관심갖고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교:** 본인에게 하라고 하면 해보고 싶어요?

**종결:**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것 하면서 보람도 느껴보고 싶는데 현실적으로 엄마가 학교 수업 관련된 것 외에 다른 활동해서 학점 망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셔서... 제 마음으로는 다 해보고 싶어요. 학교 활동은 다 해보고 싶어요. 고등학생 때 누리지 못한 거니까.

**교:** 이제 어느 과반에 속하게 될 텐데 과반에서 정치적 논의가 오갈 때 본인과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종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보수 성향이 있어요. 가서 정치 얘기만 안

하면 그만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런 부분에서 충돌하면 저는 속으로 좀 화날 것 같아요. 굳이 정치 말고라도 과반 규율이란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충돌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새내기 생각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선배들 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 바뀌는 건 좀... 다 존중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약간 걱정이예요. 생각이 조금 달라도 다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교:** 등록금은 얼마 났어요?

**종결:** 입학금까지 합해서 사백에서 오백 정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보수 성향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너무 심하죠. 솔직히 학생한테 그 정도 돈을 요구하는 건 진짜...

**교:** 근데 올해 또 올린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종결:** 맞아요. 연대랑 고대랑... 등록금 인상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올리나 고연전 한다 하던데...

**교:** 인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종결:** 아직 입학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실제로 등록금이 인상되면 뭐가 나아지고 그런 거 느껴져요? (글쎄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느끼겠죠. 화날 것 같아요. 재정 투명화 안 했죠?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쟁기는 게 있으니까. 눈술 같은 큰 거사가 있을 때마다 학교 건물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부르마블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서 돈이 부족한 것 같지 않는데 왜 그렇게 등록금 인상하면서 학생복지 운운하는지... 이해 안 가요 솔직히.

**Q: 낮춘다면 그 부담은 누가 져야 할까요?**

**종결:** 진짜 제3자가 부담을 져야 하나요? 학교가 지금 필요 이상의 돈을 받는 것 아닌가요?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둬내고 있다면 제3자가 부담 안 져도 될 거 같아요. 그냥 학교 운영하는 사람들이 맘 곱게 먹으면 되는 건데. 원래 많이 챙기고 있었으면 그걸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제 생각에는 학교가 돈을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까지 받은 돈을 갖고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봐요. 만약 그게 아니면... 이게 힘들겠지만... 세금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다니는 학생들이 부담 안 지면 누가 지겠어요. 이게 제일 난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부담할 건가. 그렇게 할 만큼 세금이 남는 것도 아니고.

**Q: CC(campus couple) 하고 싶어요?**

**종결:** 당연하죠. 선배들이 막 “CC하지 마,” 이런 다고 정말 한 번도 안 해보면 나중에 아들 낳았을 때 아들이 “아빠, CC해봤어?” 이랬는데 “아니, 아빠는 선배들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 이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ㅋㅋ 내가 하고 나서 후회를 하던 그런 건 다 내 뉘인데 대학 와서 해보고 싶은 거 중 하나예요. CC해보고 깨지면 깨지는 거고... 혼자서 자작하면서 안암동에서 술 마시고...



정원석  
(화공생명공학과 13학번)

**Q: 고등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원석:** 딱히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야자 한다고 내놓고 밖에 나가서 놀고 그랬어요. 대신 재수할 때는 열심히 했죠.

**Q: 고등학교 공부는 입시공부잖아요. 입시 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원석:** 정말 틀에 박혀 있어요. 공부라는 게 즐기면서 하는 건데 예체능도 다 점수로만 환원되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싫어지고 야자를 빼곤 했군요.) 그것도 있긴 한데 친구들이랑 논다고요. 제가 명문고를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그냥 하다 보면 대학은 어느 정도 가겠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과 다 같이 재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재수를 시작하면서도 슬프거나 우울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재수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놀면서 또 재밌고 그랬어요.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SKY 가고 싶긴 했는데 성적 맞춰서 대학가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워낙 첫 번째 수능을 못 쳐서 그런 거지 그다지 학벌에 대한 욕망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Q: 그럼 대학 가면 이런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건 있었어요?**

**원석:** 네. 전 영어를 너무 못해서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해보고 싶었어요. 영어라는 학문에 딱히 흥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서요. 대학에 가면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용적인 측면에서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고등학교 때 수학이라는 학문에 정말 흥미를 느끼기는 했는데 딱히 대학까지 와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Q: 그럼 전공을 화공생명공학과로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원석:** 화학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전공 공부가 물리도 많더라고요. 화학이 깊게 들어가면 다 물리니까요. 그래서 좀 걱정돼요. 물리는 그다지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취업이 잘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선택할 때 그런 영향도 무시 못 하는 거 같아요.

**Q: 고등학교나 재수 생활하고 비교했을 때 대학은 어떤 점이 다를 거 같아요?**

**원석:** 자유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학점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는 한데 적어도 강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Q: 가장 기대되는 점은요?**

**원석:** 고잠 입는 거요. 그런데 소개팅이랑 미팅도 해보고 싶고 연애도 해보고 싶고 유럽여행도 가고 싶어요. 과외도 해보고 싶어요.

**Q: 가장 걱정되는 점은 뭐예요?**

**원석:** 인간관계요. 제가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나대는 타입이 아니라서... 빨리 친해지고 싶긴 한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서요.

**Q: 등록금은 얼마 냈어요?**

**원석:** 입학금이 100만 원,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서 총 600만 원 냈어요. 너무 비싼 거 같아요.

**Q: 절대적으로도 그렇지만 학교 다녀보면 강의나 실험에 비해서도 너무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얼마 정도면 적당할까요?**

**원석:** 시립대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Q: 그럼 만약 그 정도로 등록금을 낮춘다면 그 부담은 누가 져야 할까요?**

**원석:** 정부...?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고... 잘 모르겠네요. 너무 어려워요.

**Q: 그러면 사회에서 대학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원석:** 지식인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인은 사회가 잘못 돌아갈 때 나서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식인들의 글쓰기나 정치인들이 하는 연설 이런 것 말고도 시민운동이나 집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 집회 경험이 있으세요?

**원석:** 아, 그건 아니에요. 대학 와서 한 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런데 이과다 보니 사회나 정치 이쪽에는 문외한이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과생들은 집회나 이런 기회에 관심을 두기가 조건적으로 힘든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좀 관심을 두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시간을 더 기울여서 해야만 하는 부분이라 좀 부담이 되죠.

**교:** 요새 스마트폰이 있어서 학과 단체카톡방 같은 것도 생기던데 선배들이랑 연락도 해봤겠네요. 혹시 학 생회를 하는 선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원석:** 아뇨. 아직 학생회를 하는 선배를 본 적은 없어요. 동기들끼리는 한 번 만나긴 했는데.

**교:** 그러면 현역으로 대학 간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학 생회를 하는 친구를 보면 어때요?

**원석:**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하던데...

**교:** 학생회가 학생들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 에 소리 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이 해야죠. 그런데 학생회만 하면 좀 안 좋은 것 같 아요. 학생들과도 잘 조율해야죠. SNS 활발하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걸로 소통해서 잘 조율할 수 있 을 것 같아요.

**교:** CC 하고 싶어요?

**원석:** 아뇨. 헤어지고 나면 워낙 안 좋다고 하더 라고요. 제 친구가 CC 하다가 깨졌는데 학교 가기도 싫대요. 그래서 안 가던데요?

**교:** 대학을 잘 나오는 게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하 다고 생각해요?

**원석:** 취직할 때까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 데 사실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특기나 장점을 살려서 성공할 수 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회가 좋다고 생각해요.

**교:** 고대에 들어온 소감은 어때요? 합격했다는 소리 들었을 때 어땠어요?

**원석:** 일단 끝났다는 생각에 기뻐어요. 또 고대 라는 이미지가 단합도 잘 되는 것 같고 끈끈한 그 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고대인이라는 자부심도 생 기고요. 학점 잘 따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저 도 잘 몰라요;;)



강제인  
(자유전공학부 13)

**교:** 자유전공이면 단과대가 어디 소속인 거죠?

**제인:** 그냥 자유전공학부요. 그래서 2학년 때 학 과 정해지면 자유전공학부 ○○학과라고 한대요.

**교:** 어떤 학과에 가고 싶어요?

**제인:** 지금은 사회학과 가고 싶어요. (정말요?) 다들 그런 반응이에요. 하하. 왜 사회학과 가느냐 고... 다 경제나 경영 간다고... 동기 중에서도 경제 나 경영 가려는 사람들 많은데요. 경제나 경영 쪽 이 아무래도 취직이 잘되고 하니까 가라고 하더라 고요. 근데 제가 경제·경영 공부 좋아지면 모르 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러면 사회학도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굳이 자 유전공학부를 지원한 이유는 법에 관심이 많거든 요. 장래희망은 법조인인데 대학교 과정에서는 사 회학과를 공부하고 싶어요. 어차피 법학전문대학 원 가야 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사회학과는 우 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학과인 거 같아요. 법만 아는 법 조인은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사회학과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법대가 없어진 상태에서 고대 자전이 유난히 법대 성격이 강하고 또 전공에서 법 을 필수과목으로 듣게 해서 '아, 이거구나!' 했어요. 여기 지원하고 사회학 공부하면 되겠다고 생각했 어요.

**교:** 수시로 들어오셨는데, 면접 볼 땐 어땠어요?

**제인:** 수능 끝나고 바로 면접 보러 갔는데 엄청나 게 떨었어요. 면접을 잘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불 어서 지금도 이상해요.^^ 제가 3번째 순서였어요. 너무 바짝 긴장했었어요. 제시문 보고 면접 보러 들어가는 게 고대 특징이었어요. 다시 한다면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교:** 수시로 입학했으면 고등학생 때 내신이 좋았을 텐데,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제인:** 저는 1학년 때보다는 2, 3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쯤 다른 친구들도 공부 하는 모습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교:** 선생님들은 당당하지 않았나요?

**제인:** 해요. 내신 안 나와도 뭐라 하고 모의고사 안 나와도 뭐라 하는데 특히 내신 안 나올 때 더 뭐 라 했어요. 대학 못 간다고. SKY 꿈꾸는 애 앞으 서 다른 선생님께 "이 정도면 ○○대(대학 서열상 더 낮은 곳) 갈 수 있나요?" 물어보고 그랬어요. 자 습도 교실에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따로 내려와서 하라 하고... 근데 저는 대학을 잘 가라는 압박감 보다 차별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어떤 차별이요?) 아무래도 높은 학교 원서 쓰는 아이들을 훨씬 많 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수시 원서 접수기간이 몰 려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 쓰는 친구들을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교:** "누가 내 자리를 치고 갈 거다"라는 압박감은 없 었나요?

**제인:** 그냥 "다음엔 잘해야지." 이라고 넘겼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대학 잘 가라고 약간 강요 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전 그런 것 별로 안 좋았어 요. 그냥 전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3 년을 보냈던 거 같아요.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좋 았나 봐요. 뚜렷하게 SKY나 어느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는 없었던 거 같아요.

**교:**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제인:** 별로예요. 서열화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때 되도록 높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대학 입시 문만 딱 보고 가는 것도 전 별로고 또 대학 잘 간 사람 못 간 사람 나누는 것도... 일단 공공연하게 국내 대학은 서열화가 되어 있는데, 대학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언제 생각한 거냐면요. 친구가 광고홍보를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광고 포스터 이런 거는 잘 만들고 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학교 내신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수시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느냐고... 그럴 때 느꼈어요.

**교:**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제인:** 전문대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깐... (어떤 점에서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안 알아준다고 봐요.

**교:** 제인 씨가 생각하는 대학의 모습과 역할은 어떤 건가요?

**제인:** 자유로움?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는 되게 간혀 있잖아요. 형식적이고. 근데 대학 가면 토론 이런 거 많이 하고 직접 어디 가는 것 많이 하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은데 봉사활동 동아리를 하고 싶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분야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의 역할은 먼저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정도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교육하는 공간이랄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을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대학교 오면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옳은가 그른가.

**교:**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인:** 음... 왜 근현대사를 배우다 보면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고대도 4.18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아주 좋았어요. 솔직히 당시에 민주라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당장 먹고사는 것이 중요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민주라는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대학생들이 되는 것! 멋있어요!

**교:** 이제 대학생이 될 텐데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제인:** 수업이요. 고등학교와 뭐가 다른가. 수업시간이 길잖아요. 도대체 뭘 할까.

**교:** 가장 걱정되는 건요?

**제인:** 시험이요. 그리고 FM? 그리고 술 마시는 거?

**교:** 미리 선배들 만난 자리에서 학생회 선배 봤을 텐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제인:**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회장까진 아니더라도 학생회에서 일하면... (어떤 점에서요?)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좀 더 친해질 기회도 많을 것 같고...

**교:** 학생사회에서 학생회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제인:** 그게 막 정치적으로 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정치를 떠나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평등같은 가치에 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건데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교:** 왜 학생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제인:** 학생과 학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봐요.

**교:**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인:** 왜 인상할까요? 제 생각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 년에 천만 원이 넘기도 하고...

**교:** 만약 등록금을 낮춘다면 그 부담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제인:** 이게 어려운데... 지금 등록금에 거품이 있는 것 같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쓰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장학금도 많이 주잖아요. 복합적으로... (대학이 쓸데없는 데 쓰는 돈을 줄이고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도 일단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육이 경영 같아요.

위 인터뷰를 통해 입학 전 새내기들이 각각 대학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세 명의 새내기들은 서로 나이도, 학과도, 꿈도 달랐다. 또 등록금 문제와 학벌주의에 대해서도 조금씩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대학을 목표로 획일화된 폐쇄적인 교육환경을 보내왔고, 그렇기에 더더욱 대학에서의 자유로움을 기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어쩌면 이번 봄호 특집의 주제인 교육투쟁도 학생들의 자유로움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교육투쟁을 통해 우리를 옳아매는 장애물, 예컨대 높은 등록금과 영강 의무화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외친다. 인터뷰 내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자유에 대한 설렘으로 눈이 빛나던 새내기들. 이들이 기대하는 대학생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대학 교육 학생 내몰리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부모님께 전동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한 달 월급보다 더 비싼 돈을 한 학기 등록금으로  
내고 있으니... 거기다 지방 출신이라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매번 등록금을 올리대요.  
반값 등록금 투쟁하던 대학생은  
구치소에 갇혀 있다던데...

최근에 구연수관에 있던 저희 동아리방이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실험연구동을  
새로 짓는대요. 그런데 옮길 곳은 마련해  
주지 않고... 5개 동아리가 동아리방 하나를  
쓰라니 말이 되나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강의실로 뛰어가요.  
대형강의라 앞자리를 잡지 않으면  
수업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면 늘 여럿이 같이 듣는 사람들이  
자리를 대여섯 개씩 맡아두고 있어요.

저는 영어 공부라고는 능력밖에 안 해봤는데  
대학에 오니 영어 강의를 들으래요.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된단나.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영어로 강의하니까 설명도 부실해진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왼쪽의 대화 내용이 낯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내에서 끊임없이 몰이 당합니다. 공부하는 공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공간, 선후배·동기들과 교류 할 공간을 빼앗겨 학교 안에서 내몰리기도 하고 비싼 등록금에 학교 밖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강의실 자리를 잡으려 기다리는 줄의 끝에 서느라 복도로 내몰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강의 때문에 카오스로 내몰립니다. 학교의 주인은 교수·교직원·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억울함을 느낀다면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빼앗긴 것은 우리의 권리가 니만큼 우리 손으로 찾아와야 하겠지요. 누군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짜증 섞인 불평만 몇 마디 중얼거리는 것으로는 우리의 권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직접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 막막합니다. 이 넓은 고려대학교에서 혼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라!' 소리쳐 봐야 뭐가 될 리 없습니다. 결국, 함께 모여 한뜻으로 외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입니다. 권리를 똑같이 침해당한 이들이 모여들다 보면 어느새 등 돌린 학교를 불러 세울 만큼의 함성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교육투쟁이 늘 진행됐습니다. 3월에 더욱 열기를 띠기에 '개나리 투쟁'이라고도 불립니다. 3월 중하순 정대 후문, 민주광장, 그리고 서관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색색의 지퍼형 후드를 입고 자료를 나누어주는 등 선전을 하는 교육권리 찾기 실천단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단을 꾸리는 주체는 학생들의 모임인 학생회지요.

그런데 이 교육투쟁이 갈수록 형식적인 연례 행사에 그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갈수록 적어집니다. 외치는 구호도 많이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왼쪽 대화에서 보이는 일들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투쟁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육투쟁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봄호 특집은 '교육권과 교육투쟁'을 주제 삼아 그 고민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권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말입니다. 어쩌면 내몰리는 것은 우리 학생만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내몰고 있는 대학, 그리고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글 | 예서

# 학생이 없는 학생회, 무엇을 말하는 학생회?

혜진 | 수습위원 | prifairy@naver.com



교육투쟁은 남의 일인 학생들

교육투쟁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권을 학교에게 요구하는 투쟁이다. 그 주체는 학생들이 되어야만 하며, 그 학생들을 모으고 대표하는 단위는 학생회이다. 특집 첫 번째 글에서는 교육투쟁의 주체인 학생과 학생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아래는 현재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이다. 이렇듯 현재 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한 단어로 표현해보는다면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회는 학생을 믿지 않고 학생은 학생회를 믿지 않는다.

고대문화는 오랫동안 교육투쟁을 해온 주체들에게 교육투쟁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2년도 정경대 학생회장, 문과대 학생회장이었던 김형남 씨와 조명아 씨를 만나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고대공감대 총학생회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서면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 학생이 없는 교육투쟁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 같아. 사람들에게 더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학생들과의 소통보다는 일방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

내가 아무리 홍보해도 안 올 거 알아. 그런데 우리라도 해야지 아무도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위는 고대문화 2012 겨울호 특집 첫 번째 글 심층인터뷰에서 인터뷰 대상자에게 들었던 학생회에

**형남:** 교육투쟁이 잘 안되기 시작한 것은 학생회가 안 되는 것과 과정을 같이해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해보자 하는 믿음이 서로 간에 사라졌기 때문이죠. 불신이 가장 문제예요. “재네들은 어차피 무관심해”라는 인식이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단과대 학생회장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 본다면 대부분의 가장 큰 불만은 학생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일 거예요.

불신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실제로 학생들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엮어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너희는 뭘 몰라'라고 자신과 학생들을 다르다고 생각하고는 (저도 처음 할 때는 그랬고요.) 그냥 앉아서 대자보 쓰고 집회만 나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다보니 무의미한 교육투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끊이지 않는 불신의 고리 속에서 학생들은 점점 학생회가 하는 일들에서 몸도 마음도 떠나지만 '그래도 학생회는 있어야지'라는 짝짝한 당위성에 의해 '학생이 없는 학생회'가 세워진다.

교육투쟁도 마찬가지다. 교육투쟁하면 3월마다 선배 손에 이끌려 온 새내기들을 주축으로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등록금 투쟁, 영강의무 폐지, 자치공간 확보 등등 '뻘한' 구호를 외치는 행사가 떠오른다. 우리는 시끄러워진 민주광장을 보며 '해마다 그때쯤 되면 하는 것'으로 여기며 지나친다. '학생'들이 '교육권'에 대해 투쟁하는 것이 교육투쟁임에도 정작 '학생'들은 투쟁하지 않는다.

학생이 없는 교육투쟁임에도 매년 치러지는 이유는 학생회가 세워지는 이유와 같다. '그래도 늘 하던 교육투쟁인데 해야지'라는 짝짝한 당위성 때

문이다.

그러나 '막연한' 당위성만으로 유지되는 학생회와 교육투쟁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현재 학생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과반 학생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기에도 입 아픈 사실이다. 학생회가 세워져 있는 과반은 요즘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과반은 학생회 없이 '과대표'만이 존재하여 달력행사만 진행할 뿐이다. 이렇게 과반 학생회가 사라지면서 학생들의 일상적 토론 공간과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기반이 사라졌다. 이런 상태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교육투쟁은 의미는 사라진 채 화석화된 구호로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매년 하는 것, 뻘한 소리 하는 것' 정도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과반학생회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작년 11월 선거에서 생명대, 경영대, 문과대 세 단과대의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과대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달랐지만 단선으로 진행되었고, 선관위는 선본이 선거회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를 무효화했다. 이후 선본은 부당한 처사라고 대자보를 통해 이의제기를 했고, 이에 선관위 또한 반박하여 몇 차례의 대자보 공방전이 이어졌다. 경영대와 생명대는 학생들이 선거를 하는지 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 기록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나왔으며 생명대는 선거가 무산되

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데에 이르렀다. 또한 생명대는 선거절차와 회칙도 무시하는 등 더 큰 문제들이 있었다. 문과대 사태 또한 거의 항상 문과대 학생회의 후보를 내오던 행진 계열에서 후보를 내지 못해 단선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단선으로 출마한 선본이 오랫동안 학생회 활동을 해 오던 기존 선본과는 달리 미숙했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 선본은 당선을 위

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선관위원에게 선본에 이익이 되는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구했고 해당 선관위원은 투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명단을 선본에게 넘기기도 했다.

그나마 학생사회가 살아 있다는 평을 듣는 문과대에서 이처럼 단선출마, 그리고 선본의 미숙함으로 선거무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사회가 허약해졌음을 뜻한다.

이렇게 방향성을 상실하고 당위로만 남은 학생회의 모습은 교육투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다면 얼마 안 되어서 이 당위성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건 무리한 추측만은 아니다.

### 학생이 '있는' 학생회를 위해서

학생이 사라져버린 학생회와 교육투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사라져버린 학생들을 되찾아 '학생이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야 할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투쟁 주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고대문화 (이하 '고'):** 성공적인 교육투쟁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형남:** 학우들이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해요. 2011년 비상학생총회를 성사시켰던 것이 가장 성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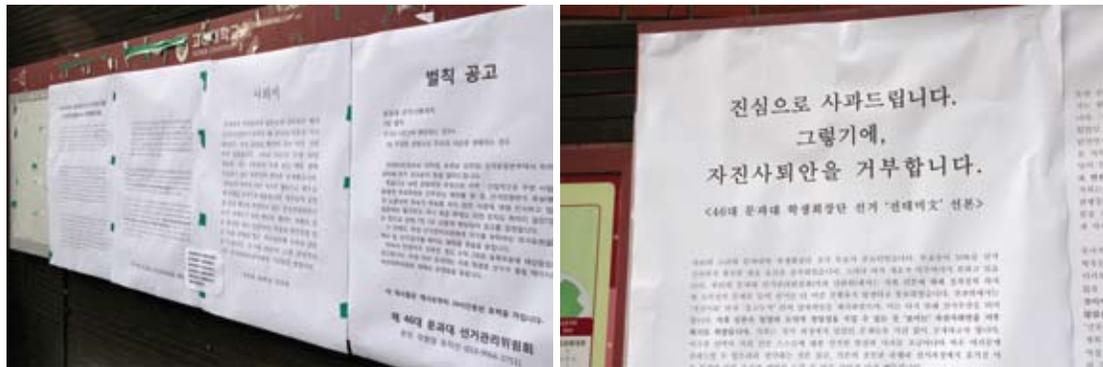


시간강사 투쟁에 연대하는 김형남씨

인 교육투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성과가 없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 본 경험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등록금 20%를 깎더라도 총학생회장 혼자서 깎는 건 의미가 없죠.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투쟁의 주체들이 퍼져서 일상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 교육투쟁의 주체로서 교육투쟁 실천단을 모으고 주위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해마다 정경대와 문과대가 다른 단과대들 보다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데 차이는 여기서 나타난다고 봐요.

**명야:** 기층 학생회의 복원, 일상적 토론공간의 복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토론 문화 자체가 소실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과대 학생회를 할 때 느낀 건데 대부분 반의 대표들을 새내기들이 맡다 보니 과반 학생회의 대표들조차 토론 문화 자체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작년 11월, 무산된 문과대 학생회장 선거



2012년도 교육투쟁

그래서 관련 기사를 읽어보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든다던가 다른 대자보를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한다던가, 문과대 아크로폴리스 2012년 문과대 학생회에서 진행했던 학술·토론 사업과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노력했어요. 과반학생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마다 반운위에 들어간다는 하는 식으로 기층 단위와 만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었구요.

**고대공감대:** 학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 기울이고,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안건들을 설정하고,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만듦으로써 학우들의 힘이 결집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 현재 교육투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형남:** 학생회 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태도와 학생에 대한 불신을 버려야 해요. 교육투쟁의 문제, 학생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생회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그마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함께 하면 된다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해요. 학생들이 학생회와 교육투쟁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유는 '항상 큰 담론만을 이야기 하고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얘기만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학교의 시스템이 결국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힘을 모아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새로운 교육, 새로운 변화에 대한 담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원인이 있어요. 학생회 하는 사람이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 내가 함께할 때 변하는 것이 있으리라는 믿음. 그 믿음을 학우들에게 주어야하고, 학생회 사람들도 학우들이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또 학생들에게 주체가 되는 경험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40억 장학금 확충을 위한 3보 1배는 가장 실패로 꼽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관심을 환기하는 데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었죠. 그렇지만 40억 환수가 되긴 했어도 학생들의 참여는 없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것은 아니예요.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생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2012년 교육투쟁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으로 서명운동만 하는 교육투쟁은 의미가 없어요. 2011 비상총회도 거수대처럼만 된 측면이 있었어요.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냥 "가면 등록금이 깎인 텐다." 이라고 우르르 몰려가서 앉아만 있다가 온 학우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인



미화노동자 투쟁에서 발언 중인 조영아씨

상적이지 못한 경험이 되었죠. 단과대 차원에서 과반 회장들과의 원활한 사전 토의와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했어요. 또 총회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의견집계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명아:** 교육투쟁과 학생회에 있어 학생들의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학생들이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인데도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사라진 거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공간을 유지하고 복원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소실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기층 학생회가 붕괴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정치의 복원, 단기적으로는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많이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고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회가 고민 해결의 통로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학생회가 개발해야 할 실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해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요즘엔 공동체에 포괄되지 않는 진보적 개인이 많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운동으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이전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도 하지만,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미약하죠.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올 실력이나 콘텐츠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고대공감대:** 학우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먼저, 많은 학우 분들이 교육투쟁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의 교육투쟁은 학우들의 마음을 얻고 설득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죠. 둘째로, 교육투쟁

을 통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이겠죠. 운동의 시대가 졌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교육투쟁은 주체가 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인 것인데, 교육투쟁의 방식은 과거로부터 과연 얼마나 변하고 발전해왔는지 반성해야 할 거예요.

또, 실제 교육투쟁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학내 다양한 단위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어떤 단위에게 교육투쟁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반면 어떤 단위에게는 교육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학교로부터 교육권을 따내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죠. 어떤 단위에서는 교육투쟁의 방식과 담론이 더 무거워야 하고 어떤 단위에서는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김형남 씨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변화를 실천



2013년 등심위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하 촉구를 함께하고 있는 고대공감대

해본 경험을 강조하며 학생회와 학생 사이의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조명아 씨는 기층학생회의 복원을 통한 일상적 토론공간의 복원 여기에서 일상적 정치의 복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하면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모아낼 수 있는 실력과 콘텐츠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공감대는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쉬운 방식과 공감할 수 있는 안건 설정, 그리고 과거 운동방식에서 벗어나는 변화와 함께 학내 다양한 단위들의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처럼 기층학생회의 복원을 통한 일상적 정치의 실현, 학생들의 주체로서의 참여, 이를 위해 학생회가 먼저 오만함을 깨고 학생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회와 학생사이의 불신을 깨야 한다. 학생회는 이러한 방법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학생이 있는 학생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대공감대의 답변은 심화적인 논의가 불가능하고 한번 온 답변에 의존해야 하는 서면인터뷰의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에 해당 답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받은 답변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근본 원인을 보기 보다는 구호의 수정, 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오히려 교육 문제의 본질과 학생들이 무관심한 현실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답변이었다.

### 학생회다운 학생회를 위해서

위와 같은 방법적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학생회의 문제가 '방법'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모아서 '학생이 있는 학생회'가 되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모인 학생들과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야기 해야 할 그 '무엇'이 곧 학생회의 정체성이다. 이에 대해 현재 학생회는 명확한 해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학생회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고려대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고려대의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현재의 상황은 '학생이 없어진 학생회'의 원인이기도 하다. 정체성 없이 당위성만 남아있는 학생회에 점점 더 회의감이 깊어진 학생들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학생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가?

80년대 학생회는 '학생운동의 구심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그를 위해 학생회의 깃발 아래 모였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그들이 가졌던 하나의 목적은 사라졌다. 학생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학생회는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정체성이 '학생을 위한 학생회'였다. 이들은 학생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학생회를 비판하며 '학생을 위한' 복지사업에 더욱 주력을 두고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두 가지 프레임에 기반해 학생회를 평가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선거

에서 우리는 선본들을 '운동권인지, 비운동권인지'로 구분한다. 지금의 학생회는 이전의 소위 '권' 학생회와 이후의 소위 '비권' 학생회라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우리가 학생회와 선본들을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프레임으로서 구분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도 고려대학교 학생회인데 지성인으로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운동권이어야지'

'왜 그런 민감한 이야기를 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학생회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지'

하지만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프레임은 위와 같은 피상적인 의견대립만 남길 뿐 '학생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운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규정조차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운동'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독자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동'이란 '목적을 위해 활동함'을 뜻한다. 그렇기에 흔히 비운동권으로 구분되는 고대공감대 총학생회가 총장과 등록금 협상을 하고 학생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춘카드를 만드는 것 모두 운동이다. 따라서 학생회가 학생을 위한 기구라면 모든 학생회는 운동권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권/비권'의 프레임 구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권은 이래서 싫어, 비권은 저래서 싫어'라는 논쟁을 넘어서 '그래서 학생회가 뭘데? 왜 있어야 하는 건데?'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학생회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학생운동 주체로서의 학생회와 복지 중심의 학생회,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다.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그 근원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문제의식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것뿐이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작게는 듣기 싫은 영어강의를 의무로 수강해야 하는 것, 학생들이 콩나물처럼 차있는 대형강의에서부터 크게는 왜 이렇게 비싼지 알 수 없는 등록금,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학생회는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의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강의무와 대형강의, 등록금, 불안한 우리의 미래 등등 각 문제들은 분야가 전혀 달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다. 그

근본원인은 어떤 것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

# 자치언론협의회 참여를 기다립니다



## Participation

자치언론협의회는 2005년부터 교지대의 15%를 학내자치언론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간행물을 출판하는 학내자치언론이라면 출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학내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3년 3월 6일 현재 자치언론협의회에 소속된 자치언론은  
 퀴어가이드 편집위원회, KUTV, THE HOANS, 거의격월간 몰라도되는데  
 (총 4개)입니다.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club.cyworld.com/kupres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 남윤지(KUTV) 010-3877-9087

# 소비자적 교육투쟁을 넘어서

시웅 | 편집위원 | komun@komun.net

앞의 특집 첫 번째 글에서, 교육투쟁의 주체인 학생회가 올바르게 서야 함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학생회는 목표를 어디다 두고 활동해야 하는 걸까? 이 글은 교육투쟁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앞의 글에서 다뤘던 주제인 학생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교육투쟁에서 누구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려고 하는가? 교육투쟁에는 수많은 주체들이 다양한 실천의 모습을 가지고 참여한다. 그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뭉뚱그려서 비판하는 것은 치사하고,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투쟁의 실천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지배적인 흐름이 있다. 작년 3월 11일 1학기 전학대회에서 학생대표자들은 청소노조·시간강사 투쟁에 연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부인들 일은 당장 학생들 이익 이랑 상관없다'며 교육투쟁을 이기적·폐쇄적으로 제한시킨 것이다. 이 사건은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초한 교육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초한 교육투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걸까?

## '소비자적 교육투쟁', 너 모기 잡을 수 있니?

모든 싸움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너네는 교육투쟁에서 왜 그런 걸 요구해?'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모임마다 각자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초한 교육투쟁'은 교육투쟁의 이유를 등록금 낸 만큼의 효용을 학교가 보장해 줘야 한다는 상식적인 논리에서 찾는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내가 낸 등록금이 얼마데 강의실이 이렇게 좁냐' 정도의 표현으로 대표되는 소비자로서의 불만은 철저히 옳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제0의 원칙은 100원을 받았으면 90원어치가 아니라 100원만큼의 물건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 그에 위배되는 일이 일어나면 당장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그런 일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거꾸로 그에 항의하던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이렇게 자본주의적 원칙마저도 여기는 학교의 사기, 범죄 행위를 비판하고 공정한 거래를 희망하는 소비자적 요구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초한 교육투쟁'에는 2가지 한계가 있다. 대체 왜 학교는 쪽팔리게 100원 받았는데 90원어치만 주는 양아치짓을 **이과 계열에게 등록금을 더 비싸게 받는 계열별 차등책징, 내역이 수상한 실험실습비, 학습 기자재의 부족, 낙후한 건물, 터무니없이 비싼 입학금 등 전반적인 부당한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다.** 일부러 하는 걸까? 쉽게 말하자면, 결국 이 모든 건 다 돈 때문이다. 대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과 동일한 자본주의적 논리를 따르고 있다. 원재료(학생)를 투입해 상품(노동력상품)을 만들어 소비자(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생산과정을 가지고, 최대한 생산비용(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시장에서 다른 경쟁 공급자들(연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을 이기기 위해 무한경쟁



초라한 등록금 기자회견 모습. 교육투쟁이 이렇게 쪼그라든 이유는 무엇에서 찾아야 하는가?

(영장 의무화, 상대평가, 경쟁 교육 강화)을 하고 피나는 구조조정도 하고(학과 통폐합) 자본을 끌어모아 서로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투기도 하는(영화관 등 교내 상업시설 확장, 펀드 투자) 대학의 조직 형태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대학은 비영리적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엄연히 하나의 자본, 하나의 기업이다. 이것이 '학교가 비합리적 양아치짓을 하는 합리적 원인'이며 크게 보면 현재 대학과 학생과 교육의 모든 문제를 낳은 근본적, 구조적 원인이다.

그러나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초한 교육투쟁'은 100원 냈는데 90원이 돌아오는 마술쇼의 원인을 자본주의적 기업으로서 대학의 본성이 아니라 단순히 '학교가 욕심이 많아서', '재단이나 총장이 나빠서' 때문으로 설명한다. 원인 분석이 잘못되었는데 올바른 해결방법을 택할 리가 없고, 문제가 해결될 리도 없다. 작년 초에 재단이 학교 돈으로 펀드 투자를 해서 100억원 가량 손실을 보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고대공감대 총학생회는 김정배 재단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고, 결들여서 이사회 의사결정구조 개선과 개방이사 도입 등의 이사회 쇄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그들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재단의 권력 독점과 대학기업화의 문제를 전혀



정배 퇴겔 재호 입겔. 학생들은 김정배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사장 한 명이 바뀌고, 사태는 조용히 종결되었다-과연 무엇이 변했을까.

해결하지 못했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결국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초한 교육투쟁'은 100원 내고 100원 받겠다는 자신의 좁은 목적마저도 달성할 수 없다.

둘째로,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초한 교육투쟁'은 100원 내고 구매한 상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개념을 따라가 보자.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초한 교육투쟁'의 논리에서 학생은 학교의 교육코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위치에 갇혀 있고, 학생과 학교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로서만 존재한다. 이는 학생과 학교가 소비자와 판매자로서의 한계 범위 안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학생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학교가 만드는 교육시스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이기 때문에 판소리하지 말고 학교가 정한 기존의 교육시스템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현재 자본주의적 교육으로 인해 겪는 꿈꾸던 큰 배움의 실종, 공동체성의 상실과 개인주의화, 무한경쟁, 비판성의 상실 등은 문제없는 것이 돼버린다. 단지 등록금 낸 값어치만큼 자본주의적 교육을 손해 보지 않고 잘 배워서 취업 잘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즉, 지금의 교육문제를 낳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 사회 구조는 그대로 남아서 문제를 계속 확대재생산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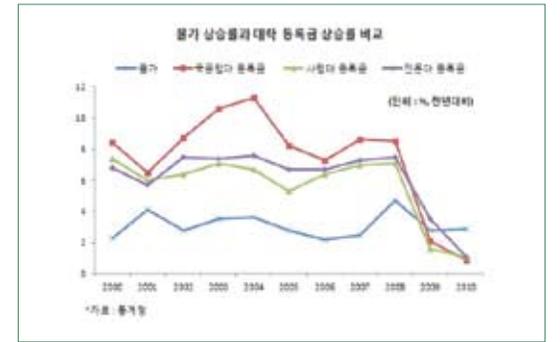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두가 환영하는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초한 교육투쟁'은 까보면 사실 이런 독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글이 너무 딱딱하니 까 좀 비유를 들어보자. 너무 덥고 찝찝해서 잠도 안 오는 여름밤에, 내일 일어나서 해야 할 일도 산더미 같은데, 불 끄고 간신히 잠들었다니만 뭐가 위잉거리면서 간지럽다. 모기다! 자다 깨서 모기를 잡아야 한다. '소비자적 마인드에 기초한 교육투쟁'

은 말하자면 캄캄한 방에서 눈가리개를 하고서 모기 잡겠다고 우왕좌왕 하는 것과 흡사하다. 모기를 잡으려면 두 눈 똑바로 뜨고 방에 불부터 켜야 한다.

## 이 가계는 참 맘에 안 드는 게 많네요!

### (1) 등록금...비싸다...나...눈물이 난다...

현재 학생대표자들이 등록금 인하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평균 12.7% 정도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2012년 감사원 발표 자료와, 물가인상률보다 등록금 상승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12.7% 정도 등록금이 인하되고,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오르면, 그 이후에는 어떤 논리로 교육투쟁을 할 계획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불만이 없으니 안 할 것인가? 충분히 내려갔으니, 다시 2000년대 초중반처럼 6%, 8%씩 올리는데 합의해줄 것인가? '에이~ 설마 그러겠어~'가 아니다. 99년 고려대 등록금은 (문과 기준) 186,9000원이었다. 08년 등록금은 356,6000원이 되었다. 불과 9년 사이에 등록금이 거의 2배에 가깝게 인상되었다. 그때 학생들 대부분이 가졌던 생각은 구조적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손해와 이익을 계산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적 마인드'였다. 당시 '등록금 더 내는 만큼 건물 더 짓고 혜택이 많아지면 괜찮지' 혹은 '등록금 올려서 학교가 발전해서 나중에 더 좋은데 취업할 수 있으면 좋지' 라는 생각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록금 상승을 용인하거나 아주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시늉만 했다. 07년 고대공감대 총학생회장 박상하는 06년 12월 이필상 고대 총장과 면담한 이후 고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금 인상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적은 폭으로' 학부 등록금 7.5% 인상이 확정되었다. 이후 결성되어 교육투쟁을 주도한 '교육권리찾기본부'에도 총학생회는 활동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지난 10여년간 평균 57% 상승했다. 고려대의 경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약 91%의 인상률을 보였다.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었다. 지금 우리들이 등록금 인하의 이유로 의존하고 있는 논리가, 바로 2000년부터 등록금을 대폭 상승시켜 지금의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낳게 만든 그 논리와 동일한 것이다.

'소비자적 논리'는 최악과 차악 사이를 뺨뺨이 들게 만들 뿐 현실을 정말 좋게 바꾸지는 못한다. 이 '소비자적 논리'에는 등록금을 꼭 인하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 등록금 자체가 문제인 이유가 없다. 단지 주관적이고 모호한 느낌에 근거한 '좀 비싸다'라는 이유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비자적 논리'로 등록금 인하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회적 상황과 여론이 조금만 변화하면 우리가 믿음직한 무기라고 생각한 '소비자적 논리'는 자살도구로 돌변해서 등록금 인상의 강력한 논거로 기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생대표자들이 '소비자적 논리'에 근거해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8차례 참여했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등록금 문제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1% 인하나 3% 인하나 학교와 흥정하는 프레임으로 갔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게 싫다면, 소비자적 요구를 뛰어넘어 학교와 정권의 이념을 비판할 수 있는 대항 이념을 개발해야 하고 그 논리에 의존해서 교육투쟁을 만들

어야 한다.

‘공부해서 남주냐’ 라는 속담과는 반대로, 대학 교육은 사실 우리 학생들 좋으라고 받는 게 아니다.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창출하는 것이 대학의 임무’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대학에서 배출된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가들이 대학교육의 진정한 최종 수혜자 아닐까? 물론 교육을 받은 덕분에 고용돼서 임금을 받는 우리들이 진짜 수혜자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받는 임금은 기업가들처럼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자금 대출 갚고 전세금 내고 필수적인 생활비에 결혼 자금 준비하면 남는 게 없는, 단지 오늘도, 내일도 온전히 노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위한 정비 비용에 가까운 것이다. 이것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윤을 비교해보면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세상에 양계장에 닭이 자기 먹을 사료를 직접 사먹는 것처럼 학생들이 거의 전적으로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싸다 비싸다 프레임을 넘어서, 교육비용 자체를 애초에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표〉 연도별 총계산, 토지저산, 사내유보금, 예비투자액 추이

항목	2007	2008	2009	2010	3개년 평균액 (2010~2007)	3개년증감률
총자산	592.5조원	739.1조원	814.3조원	921.8조원	309.1조원	55.6%
토지저산	38.8조원	55.3조원	79.3조원	89.7조원	48.8조원	115.1%
사내유보금	32.2조원	34.1조원	38.0조원	56.9조원	34.7조원	75.4%
예비투자액	40.3조원	50.8조원	42.1조원	55.4조원	35.1조원	37.5%

2011년 5월 12일 경실련 경제정책팀 발표 자료. 15대 재벌의 막대한 이윤 증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대학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흐름에서 등록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대학은 탐욕스럽거나, 학생들의 현실을 잘 모르거나, 이사장이나 총장 개인의 인격이 나빠서 등록금을 올리려는 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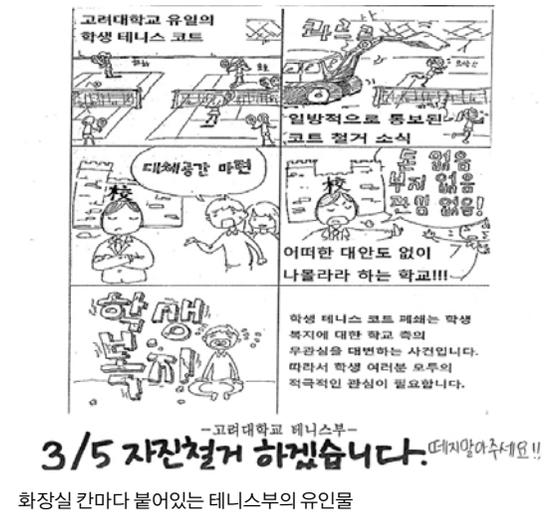
니라 자본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 되어있는 것이다. 거기다 대고 아무리 욕하거나 애원해봤자 소용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굳이’ 거슬러서, 대학이 자본주의 기업이 되지 못하도록 학생들의 저항으로 강제하지 않고서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소비자적 논리에 기초한 교육투쟁’은 위에서 말한 관점들과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특히나 나오는, ‘총장님 학생들의 눈물겨운 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호소나 ‘저희는 등록금 한번에 다 내리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입장도 고려해서 서로 양보해 합리적으로 내리자는 것인데 학교는 왜 안들어줍니까?’라는 주장은 사실 우리들 목을 스스로 움아매는 것과 마찬가지다.

## (2) 우린 자치공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등록금보다야 못하겠지만 2013년 고려대 학생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학생 자치공간 문제다. 대충만 훑어봐도 법대·자전·문대가 뒤엉킨 구법관·신법관·3법관 자치공간 문제, 경영별관 철거로 과방이 전부 날라가버린 경영대 자치공간 문제, 학생 테니스코트 철거 문제, 정통대 구연수관 동아리방 철거 문제, 애기능 학생회관 동아리방 소음·협소 문제, 문대의 sk 미래교육관 공간배정 문제, 예정된 대강당 철거 이후 풍물패 연습공간 문제, 보과대와 생명대 이전에 따른 학생자치공간 보장 문제 등 시한폭탄급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외에도 어떤 단대나 과반도 학생자치공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공간 문제는 고려대라는 공간이 어떤 교육이념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하는가, 학교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학생이 대학 취업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이수하는 소비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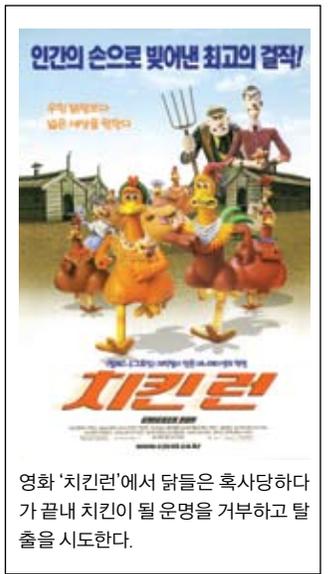
불과하다면, 사실 총장님이 ‘왜 학생자치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올해 총학생회장과 총장의 면담 자리에서 저 말이 나왔다고 한다. 총학생회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물어봐 주셨을 때 할 말이 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치공간까지 제품 구매 계약에 포함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기업이 원하는 좋은 상품이 되는데 열람실 정도만 있으면 되지 자치공간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학교의 주인은 재단이지 학생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이래라저래라 결정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 되니까. 하지만 그런 소비자적 마인드를 넘어서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어야 하고 따라서 대학이라는 공동체의 일들을 결정할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치공간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학교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단 관련 공간과 교수 연구실, 실험실 등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술만 먹고 관리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자치공간으로 쓰면 안 된다는 학교의 논리와 비타협적으로 자치공간을 배제해온 행위에는 깊은 믿음이 있다. 고려대는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참된 의미의 인간적 교육을 실천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치공간을 둘러싼 문제는 공간을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인가 하는 방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이념의 대립이다. ‘우리는 이념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싫고 순수하게 자치공간을 보장해달라는 것뿐이다’라는 호소는 순박한 매력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학생들은 교육 이념의 문제를 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학교, 기업, 자본주의 사회는 교육 이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들은 ‘고려대는 기업이 원하는 자본주의적 노동력을 생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이념의 문제로 대학을 옥죄고 있고, 그것이 공간 분야에 반영되어 나타난 문제가 자치공간을 둘러싼 대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자치공간을 원한다면, ‘고려대는 취업 기계를 찍어내는 노동력 공급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인간적 의미의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공동체를 꾸릴 물적 기반이 되는 자치공간을 반드시 원한다. 그런 모일 장소가 없으면 공동체는 해체되고 뿔뿔이 개인으로 파편화 돼서 아무런 고민이나 저항도 할 수 없는 순종적인 상품이 될 테니까.’ 라는 대항 논리로 자치공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더해서, 자치공간의 문제는 학교와 학생 간의 권력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학교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을 무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





본관 앞에서 바라본 평화로운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의 봄날 풍경

에게 학생들은 자신들이 노동력상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되는 반제품, 원자재이거나 자금 징발의 대상이지( 좋게 말하면 소비자) 고려대라는 교육 공간을 같이 꾸려나가는 동등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닭이 우리도 양계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면 양계장 주인은 얼마나 웃길까.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이자 학교의 주인으로서 실질적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는 학생권력을 창출하지 않는 이상 학사행정의 민주적 운영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큰 흐름이 바뀌어야 의사결정의 한 부분인 자치공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전망 없이 학교의 자치공간 철거만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형식적인 공간배치위원회 학생 참가만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인 세계관의 대립이기 때문에 좋게 좋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거를 포함한 학생들의 직접 투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서로 평등한 관계라면 말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학생들이 말로만 호소했을 때 학교가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무단 점거'라던가 '투쟁'이라는 방법이 많이 혐오스럽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치공간은 그렇게 투쟁해서 쟁취한 것이라는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발생한

구연수관 정통대 동아리방 철거 사건이 투쟁을 통해 대체공간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6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를 받고 정리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2010년 사대분관 철거 반대 투쟁처럼 싸워서 쟁취한 승리의 경험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학교한테 밀린 사례로 남았고, 언제 다시 미관을 이유로 철거 위협을 받을지 모르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치공간을 둘러싼 이런 문제의식을 학생들이 심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 (3) 최종보스: 학교발전 이데올로기, 경쟁 이데올로기

*"대학 발전의 총체적 동력과 의지가 실종되었고 학교 재정 전망이 극히 비관적이며 국내외 대학 평가와 입시에서 초유의 위상 추락을 겪고 있다."*

- 2012년 11월 30일,  
고려대학교 교수의회 총회 공고문 중에서

작년 말 교수들의 재단에 대한 비판 움직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표했다. 2학기 전학대회에서 지지안이 결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수총회의 총장과 재단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고려대가 더욱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학교발전 이데올로기의 강화였다. 이런 교수총회의 입장을



2011년 카이스트 비상학생총회에 걸린 플래카드

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총장과 재단을 비판할 때 현재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2011년 4명의 학생과 교수 한명이 자살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서남표식 경쟁력 개혁'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경쟁력 개혁'은 ① 학점 3.0 아래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750만원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등록금제도 ② 100% 영어 수업진행이 골자였다. 4명의 학생 모두 그로 인한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자살했다. 이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고, 2011년 4월 학생총회에서 '학교 당국의 경쟁 위주의 개혁 실패 인정 요구' 안건이 제기되었다. 이는 당연히 의의가 있었지만 경쟁이 필요하다는 이데올로기, 우리 학교가 발전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까지 나간 것은 아니었다. 경쟁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정도의 문제인가? 정도가 인간적으로 완화되면 현재 카이스트 학생들이 겪는 문제가 없어지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막아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경쟁력 개혁'을 강요할 텐데, 그것들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러한 한계는 자본주의적 경쟁 이데올로기 틀 안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당시 보수언론들은 학생총회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과반수는 넘지 못해 안건이 부결된 결과를 '대다수 학생들이 비교우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남표 개혁을 지지했다'며 왜곡보도 했는데 2011년 4월 14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카이스트 학생 절반 이상 '서남표 개혁 실패 아니다'>(조선, 12면) <KAIST 학생들 "徐총장 개혁, 실패 아니다">(동아, 1면) <학생들 "KAIST 비교우위 지킬 개혁 필요">(동아, 8면) 그것은 당장 카이스트에서 경쟁력 개혁 몇 가지를 철회하는 것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에 대한 초보적인 문제제기의 싹마저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국 자본가 계급의 의지를 드러내 주는 일화였다.

2010년 중앙대 구조조정 사례는 '중앙대가 더욱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학교발전 이데올로기, 경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파괴하는데 이용되는지를 잘 보여줬다. 2010년 고대문화 100호, "대학에서 시장으로-중앙대는 어떻게 '두산대'가 되었나"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서 중앙대 학생행진을 비롯한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제기했던 요구는 '기초학문 사수, 인문학 보존, 학생참여 보장'이었다. 그러나 초반에 학교 당국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각종 비민주주의적 행태에 분노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중앙대 당국의 '착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것은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고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발 빠른 대응 이후에 사그라들었다. 그 이후 구조조정을 비켜간 공대, 경영대, 경제학과 등의 학생들은 왜 기초학문, 인문학이 사수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시했고 구조조정의 당사자였던 학생들도 보편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 살리기'에 그친 요구를 했다.

중앙대의 사례는 자본주의적 교육의 논리가 점점 교묘해져가는 현실에서, '자본이 결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저항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기초학문 사수, 인문학 보존, 학생참여 보장'의 요구는 취업, 브랜드가치 상승 등 학교발전을 위해서 인문학을 구조조정하고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교발전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했다. 단순히 애매한 민주주의적 요구에 기초해 대중들의 분노를 모아내는 방식은 더 효과가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앞에서 대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기업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봤다. 현재 대학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는 구체적으로 학교발전 이데올로기, 경쟁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되어 실천되고 있다. 등록금을 높이는 것, 자치공

간을 줄이는 것, 학생을 무시하는 것, 갖가지 학사 행정을 보다 경쟁적으로 바꾸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 모두 그렇다. 따라서 교육투쟁이 직접 맞부딪쳐서 반대해야 하는 것은 그런 학교발전 이데올로기, 경쟁 이데올로기일텐데, 문제는 현재 교육투쟁이 의존하고 있는 '소비자적 논리'가 아주 쉽게 학교발전 이데올로기, 경쟁 이데올로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손익 타산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적 논리는, '노력하는 개인'에게는 성공의 기회를 더 넓혀주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학교발전 이데올로기, 경쟁 이데올로기와 아무런 모순되는 지점없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 아무리 잘 쳐도 파울은 득점이 아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경쟁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대안적 관점으로 06년부터 시작된 '서남포식 경쟁력 개혁'을 저지할 수 있었다

면 4명의 학생들이 자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올바른 대항 이념은 이론적·현학적으로 더 정답이어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수긍해야 하는 것 이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 선동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적 논리를 넘은 올바른 대항적 이념은 카이스트에서 4명의 학생을 살릴 수 있는, 정확히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당성과는 별개로 교육투쟁에서 올바른 관점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학생자치활동 자체가 붕괴되고 있고,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학내에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은 어떤 저항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투쟁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자본주의가 어떻고, 대학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당장 쉽게 잘 먹히는 '등록금 비싸잖아, 내려야지'라는 식의 접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는 신나게 깔지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잘 쳐도 파울은 득점이 아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무

엇일까?'를 고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실천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현재의 '보수적인' 학생들까지 동의 가능한 한계 범위 안에 있는 내용만 교육투쟁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보수적' 의식을 영영 변화시킬 수 없고 결국 교육투쟁의 고민의 수준을 그 수준으로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학생들의 의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더 쉬운 이야기, 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앞에서는 자본주의, 대학 이야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 고등교육을 받고있는 우리들한테 자본주의와 대학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어려운 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저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교육과 사회에 대한 어떤 큰 전망이나 비전도 없이 단지 등록금 몇만원 인하를 놓고 학교와 흥정하거나 시험 기간에 야식 주거나 와이파 이망 확충하는 것을 자랑하는, 변화에 대한 전망을 포기해버린 학생회들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소비자적 요구를 넘어서, 진짜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다. **주주**



# 한국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언

하늘 | 수습위원 | yhnyls01@gmail.com



2010년 3월 10일 본교 경영학과 김예슬 학생이 자퇴 선언을 했다. 그녀는 무한경쟁과 스펙 사회, 그리고 대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한 대학을 비판하며 대학을 떠났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에서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물을 수 없었다... 이름만 남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된 대학, 그것이 이 시대 대학의 진실임을 마주하고 있다.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되어 내 이마에 바코드를 새긴다. 국가는 다시 대학의 하청업체가 되어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2년간 규격화된 인간제품을 만들어 올려 보낸다.”

김예슬의 말대로 오늘날의 대학은 큰 배움(大學)을 추구하는 곳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무엇보다 김예슬의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거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게 타락한 대학의 현실이다. 어느 누가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라 했던가. 수많은 대학들은 그저 외형적 확장에 집착하여 학생자치공간은 등한시한 채 수백억짜리 번듯한 건물만 세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이유로 영어강의를 증설하며, 돈되고 취직이 잘되는 학과만 육성한다. 그야말로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와 대기업

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인력시장으로서의 대학만이 존재할 뿐이다.

## 국가, 기업, 그리고 대학

대학은 아예 기업에 인수합병 됨으로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성균관대와 두산그룹의 중앙대가 그 예이다. 기업의 대학 인수는 교육 지원사업 정도로 비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우리 기업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성의껏 지원하겠소’이지만 실상은 ‘사회공헌 명분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시키고 세금 낼 돈으로 학교에 기부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학교법인을 소유하면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기업 순이익의 최대 50%까지 사립학교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수한 대학에 병원이 달려 있을 경우 부수적인 이윤창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사실 영리집단인 기업과 비영리집단인 학교의 만남은 애초부터 부적절한 것이었다. 모든 것을 효율성의 잣대로 재단하는 기업의 논리는 대학 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물론 기업의 안정적 지원에 힘입어 대학의 재정상태가 나아지고 학문적 경쟁력이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경우 대학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대우그룹이 인수한 아주대와 쌍용그룹이 인수한 국민대는 IMF 이후 두 기업이 부도를 맞아 한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사회 내 비판적 지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게 된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한편 사회의 비판적 지식인도 양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학은 자본친화적 학문과 교육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대학 내 의사결정권과 학문 자율성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판적 양심을 지닌 지식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사찰을 당하며 불이익을 받는 경

우도 발생한다. 성균관대 재단 소속 총괄지원팀과 법인사무국이 '문제교수', '특이활동', '운동권 동향' 등의 항목을 나누어 교수와 학생회 활동을 사찰한 사건으로 삼성이 성균관대를 인수한 97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체제에서 대학은 거대자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본의 논리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기업, 대학은 삼각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자본주의 옹호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 교육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대학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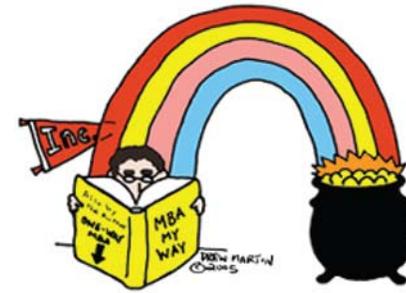
2011년 9월, 성균관대는 평소 학내문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류승완박사의 강의권을 박탈하였다.

### 미국 대학과 자본의 결합 과정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산업자본주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기업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기업의 이윤은 국가 경제의 상당한 부분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 활동을 장려했고 이는 기업자유주의라는 다소 변질된 자유주의의 출현을 부른다. 기업자유주의는 기업과 정부의 유착, 형식적인 사회복지입법, 타협적인 자본

-노동관계 1880년대 미국 노동운동 세력은 임금노동제도에 기반을 둔 지배종속관계를 철폐하고 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때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비계급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단체교섭의 기회를 늘렸고, 이는 1890년대 이후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받아들여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경제적 요구에 그치게 만들었다. 1947년 6월 노조활동 제한과 기업 경영권 강화를 골자로 한 노사관계법이 제정됨으로써 타협적 노사관계는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를 구축하여 미국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기업중심의 질서로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클라우드 W.바로우, 『대학과 자본주의 국가』, 문화과학사, 2011, 19쪽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 역시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기업의 영향력이 대학에 까지 확대되면서 성직자들로 이루어졌던 기존 이사진의 대부분은 기업 관계자들로 대체되었고, 초기 미국대학은 학문탐구를 목적으로 주로 성직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학 운영 방식 역시 자연스레 생산성과 효율성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는 교수 대 학생 비율의 상승, 고전과 인문학 강의 축소, 공학과 같이 실용적이고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학문 지원 확대로 이어졌다. 또한 이사회는 대학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수들의 봉급을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비율로 인상함으로써 교수집단의 경제적 지위 하락을 야기했고, 결국 이들이 정신적 생산수단을 흔히 생산수단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 기계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정신적 생산수단이란 지식, 사상 등의 무형물을 창조해내는 학교나 출판사 등을 뜻한다. 소유한 자본가 계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축소시켰는데 주로 경제학, 철학, 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을 해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요약하자면 대학이 자본가 계급과 국가 권력에 결합되면서 대학 내 다양한 사상과 비판적 지성을 통제하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치로 전략해버린 것이다.



돈되는 학문만 대접받는 세상

100여 년 전 미국 대학의 모습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국가와 기업과 대학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교육을 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타락시킨 부분이 특히 그렇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의 공공성 상실이다.

### 교육의 공공성에 대하여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공공성은 물과 공기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사유화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사건 중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KTX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한·미 FTA 체결, 서울대 법원화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의료·공공시설·교육이 시장의 영역에 포함되어 자칫 공공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공공성이란 사적인 시장의 영역과 대립되는 공적인 영역(국가)의 특성, 또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재는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시장에서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과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장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공공재는 국방과 치안이다. 만약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이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거래된다. 특히 무한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도래 이후 이러한 현상

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신자유주의가 대세라 해도 국가에 의해 공공재의 형태로 공급되어야 할 재화와 서비스는 존재하기에 마련이고 이는 공공성의 울타리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교육이나 의료와 같이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누구나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재가 시장의 영역에서 거래될 경우 최소한의 삶의 조건마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자본의 영향 하에 놓이면서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교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변질되었고 일반적 상행위와 마찬가지로 교육 상품 역시 '교육 소비자'의 경제력에 따른 구매가 이루어진다. 수많은 언론보도와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부모의 소득과 자녀가 받는 사교육의 질은 비례관계를 보인다. 나아가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 특목고 진학율, 서울권 대학 진학율까지 영향을 끼친다. 일례로 SKY 등 서울 상위권 대학 학생들의 약 40%가 소득 상위 10%(월평균 가구소득 923만원) 안에 드는 최고소득층의 자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SKY대 학생

35%가 '상위10% 자녀', <한국대학신문>, 2012/03/02



생각해보라. 이 땅의 명문대생 거의 절반이 최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이들은 각종 해외 봉사활동과 어학연수를 통해 스펙 경쟁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며, 등록금·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에 좋은 학점을 받을 확률도 높다. 반면 집안이 그리 넉넉치 않은 대학생들의 현실은 조금 다르다. 이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에도 두 세개씩 알바를 뛰고 징검다리 휴학을 한다. 돈을 벌어 겨우 등록금을 낸다 해도 학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점 또한 바닥이다. 등록금 벌기도 바쁜 마당에 스펙 쌓기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저학점·저스펙 학생들에게는 취업의 문 또한 비좁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유일한 계층상승의 통로로 작용해온 교육의 기능조차 봉쇄하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계층의 고착화, 기득권 세습, 폐쇄적 사회 분위기 등을 초래했다. 즉,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균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이 소수 기득권 계층의 사유물로 전락하여 그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기에 이른 것이다.

### 유럽의 교육 공공성 인식과 무상교육

그렇다면 한국 대학은 어떻게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원론적 모델로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유럽을 생각해 본다. 전 세계의 대학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면 영미식과 유럽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영미식은 비싸고 유럽식은 싸다. 이는 한 사회 내에서 교육의 의미가 어떻게 합의되었는가에 따른 결과다.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영미 국가의 교육은 철저히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반면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에서는 새로운 공공재를 만들지 않고는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무상교육을 비롯한 각종 보편적 복지 제

도가 발달했다. [조한혜정 칼럼] 무상 보육과 보편적 복지, <한겨레신문>, 2013/01/29 유럽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어야 하고 교육이 철저히 공공재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인식된다.

###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

프랑스의 모든 제도는 공화주의라는 정치사상과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공화주의는 단순히 군주정 이외의 정치체제를 지향하자는 사상이 아니다. 공화국(Republic)의 어원은 라틴어로 Res Publica인데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다. 공화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의 기초 이념으로 과거 군주제와 달리 국가가 소수 지배 계급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공공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근대 정치사상이다. 물론 고대 로마에도 공화정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귀족에 의한 과두정치가 행해지고 있었기에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고 근대의 자유, 평등 사상 등을 내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공화주의의 범주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때 공화국은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프랑스가 모든 시민에게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목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무 의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개인의 교육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다닐 수 있다. 더불어 국민들 사이에도 국가에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준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바로 옆 나라 독일 국민들도 이와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독일의 몇몇 주에서 등록금 폐지 관련 주민투표가 시행되었다. 1970년대 독일에서는 교육 평등권 사상과 학생들의 등록금 폐지 운동 등에 힘입어 무상교육 시스템이 자리잡았다. 그러다 자유주의 성향의 일부 주에서 ‘교육도 서비

스 상품’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관과 주정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수업료를 받기 시작했다(최고 70만 원 정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대학의 정책 자율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 2007년에는 독일 전체 16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 등록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5개 주에서 등록금을 폐지했으며 이제 나머지 2개 주의 등록금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주요 정당들도 민심 확보를 위해 등록금 폐지를 전면구호로 내걸었다. 독일 대학등록금 전면 폐지할듯, <한겨레신문>, 2013/02/05 이는 국민들 사이에 교육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교육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경제력에 따라 이 권리가 훼손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독일 대학생 8만 5천여 명이 등록금 폐지를 요구하며 가두시위와 연좌농성을 벌였다.

### 무상교육, 그러나...

유럽의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핵심 사례로 등장한다. ‘유럽에서는 국민소득 1만달러일 때 이미 무상교육 실시했다더라, 우리나라는 2만달러 넘어가는데 언제 할 거냐, 부자감세만 안 해도 재원 확충에 문제는 없다, 의지의 문제다...’ 이러한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에서 무상교육만 실현되면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무상교육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무상교육은 모든 이들을 같은 출발선상에 세워놓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즉,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란 말이다. 따라서 아무리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본친화적 교육 시스템과 학벌주의가 남아있는 한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나라에서도 학벌문제는 존재한다. 일례로 프랑스 내에서 ‘대학 위의 대학’이라 불리는 그랑제콜(Grandes Ecoles)은 엘리트 양성 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고급 기술자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배출해낸다. 언론에 비치는 정치, 경제인들 중 열에 아홉은 그랑제콜 출신이고 프랑스 사회는 그랑제콜 출신들에 의해 돌아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마치 SKY대학 출신 1%가 사회 재원의 60%를 소유하고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처럼 평등교육을 중시하는 유럽에서조차 학벌과 대학 서열은 존재한다. 그러나 유럽의 학벌은 우리나라처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극소수의 엘리트 양성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평준화된 교육체계, 안정적인 무상교육 시스템, 그리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안정적 삶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학교 서열이 학생의 인생을 결정짓다시피 하고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라는 말들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다.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자본에 종속된 대한민국 대학의 현실을 살펴 보았고, 현재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00년 전 미국 대학이 거대자본과 결합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시장논리에 따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공공성 상실로 규정할 땐 교육의 공공성이 잘 실현되어 있는 유럽의 사례도 보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교육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론적 대안으로 무상교육을 제시하였다.

무상교육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의 공공성 문제가 해결되어 누구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대기업에 취직해야만 하는 현실, 사회에 팽배한 학벌주의, 서울-지방 대학 양극화 등의 상황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EDUCATION  
IS A LUXURY  
IS A MORTGAGE  
IS A BUSINESS  
IS A RIGHT**

교육은 사치도, 빚도, 사업도 아닌 우리들의 권리다.

그럼에도 우선 가장 시급한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본다. 돈에 의해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는 상황만 보면 반값 등록금 실현조차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유토피아로만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등록금 정책은 의회에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국가 예산 운용만으로 시행할 수 있기에 학벌주의나 자본에 종속된 대학문제 등 거시적 사안의 해결보다는 현실적이고 시간도 덜 걸릴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문제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던가. 한 사회 내에서 어떠한 가치가 합의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유럽의 무상교육도 시작부터 정착까지 최소 수십 년이 걸렸다. 대학의 공공성 회복, 그 어떤 문제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 문제부터 해결할 일이다. 高大文化

**참고문헌**

- 교육혁명공동행동연구위원회, 『대한민국 교육혁명』, 살림터, 2012.
- 유경준, "미국 노사 관계의 과거와 현재", <http://cafe.daum.net/ifnf/2bhB/18?docid=1AVw12bhB1820070626141421>.
- 클라이드 W. 바로우, 『대학과 자본주의 국가』, 문화과학사, 2011.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미친 등록금의 나라: '반값 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개마고원, 2011.
- 홍세화,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한겨레출판, 2008.

# 고대문화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고대문화는 학우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관심있는 주제를 다룬 글이나 학내외의 일에 대한 생각을  
A4 2매 안팎으로 보내주세요.  
만화, 만평 등 다양한 형식들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komun@komun.net](mailto:komun@komun.net)  
문의 | 02-927-7197, 010-9797-8317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5만원)을 드립니다.



# 19년 동안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안수용 할머니 싸움

윤희 | 편집위원 | choyh6226@naver.com



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1111이나 273 버스를 타고 다섯 정거장 가면 성북구청이 나온다. 내려서 구청 후문으로 가면 천막이 하나 있고 천막 뒤 보도 난간에는 성북구청을 규탄하고 할머니의 권리를 구제하라는 플래카드들이 걸려있다. 이곳은 안수용·조남희 부부(이하 안수용 할머니)의 농성장이다.

했수로만 19년째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성북구청, 신재균 의원(건축업자이자 현 새누리당 성북구의회 의장), 고려대학교에 의해 4번에 걸쳐 집이 강제철거 당하고 이들과의 소송이 여러 번 이어지면서 안수용 할머니와 그 가족의 평온한 일상도 함께 철거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번 겨울에도 노부부는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싸움의 발단은 신재균 의원의 허위 진정이었다. 할머니가 집을 보수하려고 하자 할머니의 집은 고려대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한 무허가 건물이므로 재건축할 수 없다는 진정을 넣었던 것이다. 당시 할머니는 집이 지어진 고려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였고 신재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사용승낙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북구청은 허위 진정을 받아들여 철거를 진행했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다.

한편 고려대 학생들은 2003년부터 이 싸움에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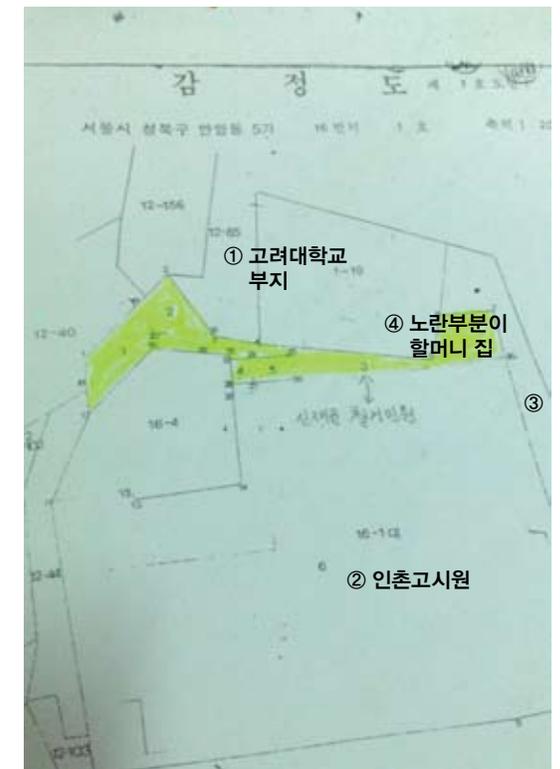


성북구청 뒷마당에 있는 농성장에서 항의 집회하는 모습

대해왔다. 작년 2학기 전학대회(2012. 11. 27)에서도 안수용 할머니를 지지하기로 결의했고 교내에는 이 일에 관한 대자보가 붙었다. 지금도 할머니의 싸움에 연대하는 안암동 철거민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학생대책위)는 매주 목요일 성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다자간 관계

할머니와 성북구청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가 될 만한 사진과 소송자료를 모아놓고 있었다. 구체적 자료들에 기초한 것임에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엇갈렸고 매우 오래된 사건이기에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다음은 할머니 집이 위치한 안암동 5가의 토지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자간 관계를 간략히 설명해 보려 한다.



한눈에 보기에 집이 여러 소유자의 토지에 자리 잡고 있어 뭔가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 것은 위치의 복잡성보다 소유권, 점유권, 주거권에 관한 법의 복잡성이었다. 사건이 장기화한 이유는 할머니와 성북구청 등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안수용 할머니의 권리를 구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당사자인 안수용 할머니와 성북구청을 비롯해 문제를 조사하고 개입했던 사람들,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소송자료들을 직접 검토해 보았다. 안수용 할머니, 성북구청(담당자인 감사과 임근수 팀장), 학생대책위 학생들, 전국철거민연합, 고려대 공익법률상담센터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신재균 의원과 고대 측과는 연락해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할머니가 현재 중점적으로 싸우고 항의하고 있는 대상은 성북구청이기 때문이며 둘째 소송자료를 비롯한 문서들을 훑어보고 여러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들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 역시 고대문화의 '또 다른 판단'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여러 의견과 자료들을 검토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성북구청과 할머니의 관계

성북구청은 화재가 발생했던 95년과 재해 복구했던 98년 두 차례에 걸쳐 할머니의 집을 강제철거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4차례의 강제철거 중 1차, 2차는 성북구청, 3차는 신재균 의원, 4차는 고려대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청은 95년 철거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민원서류 문서보관 기간은 3년이라고 한다. 했지만, 할머니의 기록에 신재균의 계속되는 허위 진정으로 구청이 재해복구 한 부분을 강제철거한 사실이 남아있다.

98년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할머니는 불법행정,

### 행정대집행

대집행이란 복잡한 말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를 스스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한 후에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무허가 건물 양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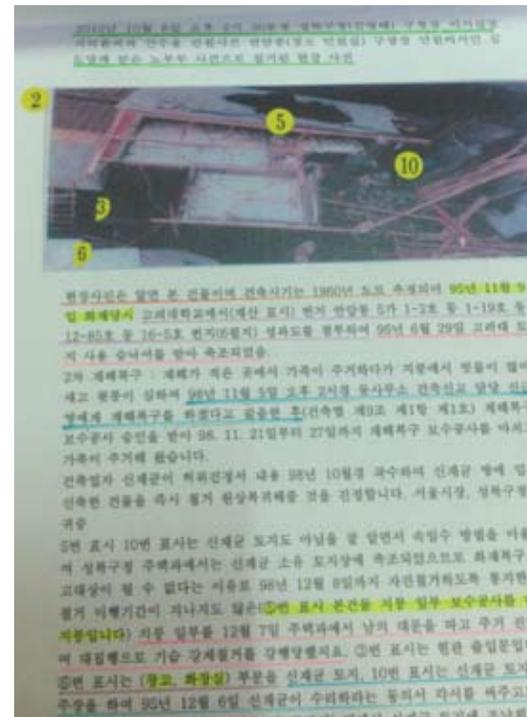
82년 4월 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하여 이전에 지어진 일부 무허가 건물은 규제하고 이후 새로 생겨난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인정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이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불법철거였다는 입장이고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정대집행 강제철거였다고 말한다. 60년대에 지어진 할머니의 집은 원래 무허가 건축물이었는데 82년 정부에 의해 양성화되었다. 이는 건물 자체를 인정하고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는 의미다. 98년 11월, 할머니는 집을 보수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찾아가 신○○ 직원에게 신고하고 재해복구 공사 승인을 받아 수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할머니와 성북구청의 주장이 다르다. 구청은 할머니가 진행한 공사는 단순한 수리나 보수가 아니라 '증개축'이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허가된 가정집 건물에 조그맣게 수리할 일이 생기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지만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할머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와를 구하기 어려워 슬레이트로 지붕을 새로 수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높이가 올라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청에서는 상향으로 17m<sup>2</sup>, 옆면으로 3m<sup>2</sup> '증축'했다고 보고 있다. 의견을 물어봤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전체적으로 지지대, 골조를 새로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주장이 엇갈리는 또 다른 부분은 행정적 신고 절차를 거쳤는가다. 할머니는 조○○을 당시 동사무소에 동행했던 증인으로 내세우며 직원 신○○



하지만 할머니 집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옆으로 3m<sup>2</sup>를 증축하는 일은 공간 여건상 불가능해 보였다.



증축이 아니라 보수였다고 말씀하시며 할머니가 보여주신 자료

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청은 당시 할머니의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행정적인 서류신고 절차 없이 진행한 불법증축이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허가가 구두로만 이루어져서 애초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직원 신○○이 적법한 허가권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구청의 철거가 불법이었던지 아니었던지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사실관계를 정확

히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알려주고 민원 해결을 도와주어야 할 공공기관이 과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법원은 98년 철거 당시 성북구청이 안수용 할머니에게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을 몰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할머니와 구청의 평가가 다르다. 할머니는 법원의 이행강제금 불인정이 구청의 철거가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구청은 법원의 판결이 철거는 합법적이라고 보나 할머니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구청은 구청대로 그동안 신재균 의원과 고려대 측에서 요청한 철거도 거절하고 노부부가 농성하는 동안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왔다고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서울시, 경찰, 검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불법철거와 부당한 행정 행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구청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 신재균의 의도된 허위 진정

신재균의 인촌 고시원 건물은 일조권, 조경면적,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용도변경 등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할머니 집에 대해 강제철거를 진행한 것과는 달리 인촌 고시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구청이 신재균 의원이 고시원의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 넣은 허위 진정을 받아들여 할머니의 집을 철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을 수 있는 대목이다.

## 고려대학교와 할머니의 관계

현재 할머니의 집 일부는 고려대가 소유한 토지 위에 있다. 과거에 고려대는 할머니가 이와 같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그 이유는 고려대가 할머니가 소유했던 토지 일부를 학교 용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서로가 사용하고 있는 서로의 땅에 대해 '교환 계약'을 맺을 것을 전제로 허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96년 교환을 시도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 되지 않았고 이후 2000년에 거듭된 소송으로 할머니가 소유한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교환 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할머니는 집 일부가 위치한 고려대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3번의 소송에서 고려대가 모두 승소했고, 2003년에 고려대에 의해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할머니의 집 대부분이 무너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

## 신재균 의원과 할머니의 관계

둘의 관계에서 직접 문제가 되는 토지는 45p에 있는 그림에서 노랑색 칠해진 부분, 즉 할머니의 집이 있는 토지 중 ②에 속하는 부분이다. 법원 판결문을 검토해봤을 때 토지 점유권은 할머니에게 있고 토지 소유권은 신재균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상태를 일단 권리로 보호'하는 것으로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할머니는 신재균과의 3차례 소송 중에 할머니의 집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 신재균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인정되어 신재균 의원이 전 토지 주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할 때 집이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의사를 포기하고 3500만원 가량 감액받았다. 2, 3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즉 점유권을 인정받은 것인데 이는 아무리 신재

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지어진 집이라도 함부로 강제철거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그는 할머니 집을 '불법으로 철거'했고 어떠한 보상이나 합의도 하지 않았다.



현재 할머니 집을 가보면 고시원과 마주한 할머니의 집 안쪽에 신재균 의원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큰 경계담장을 볼 수 있다.

##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 시효

고려대, 신재균 의원 둘과의 관계에서 할머니는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 시효'라는 법적 근거로 집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인정되려면 20년간 자기 소유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야 하고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할머니의 경우 이 요건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할머니의 점유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평온, 공연한 점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건물과 ③부분 토지를 매입한 95년도 전까지 그 이전 주인들이 사용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즉 할머니가 매입하기 이전의 사용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 성북구청의 부당한 행정

과연 안수용 할머니 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요원해 보인다. 할머니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더더욱 그렇다. 이 사건은 위에서 보았듯 '구청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증축한 건물에 대한 합법적인 철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명확히 불법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성북구청의 철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북구청의 행정집행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고 '부당'했다. 그렇기에 이런 성북구청의 철거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북구청 강제철거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는 먼저 예정된 날보다 하루 일찍 철거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98년 당시 안수용 할머니에게 12월 8일까지 자체 철거하도록 권고했으나 구청은 그보다 하루 앞선 7일에 강제철거를 했다. '할머니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이는 행정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또 구청은 90세의 노모가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철거를 진행했고 노모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설령 이러한 사실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난 사건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철거를 진행한 것도 문제가 된다. 아직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전국철거민연합 등 철거민들의 투쟁으로 동절기 철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임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상태다.

설사 구청의 주장대로 98년 공사가 불법증축이었다고 해도 한 가정의 삶의 공간이었던 집을 강제 철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시정하려 한 구청의 행위는 지나친 것이었다.



구청의 강제철거로 현재도 할머니집의 출입구 쪽 담이 무너져있다.

## 강제퇴거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법

무엇보다 성북구청의 철거는 '강제'적 진행이었다는 것 그 자체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강제퇴거, 주거, 소유 관련 법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성북구청이 강제철거를 진행한 법적 근거는 행정대집행법이다. 쉽게 말해 어떤 개인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강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제도와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은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

적 소고, 조규범, 2009'라는 논문을 참고했다. 강제철거 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위법, 부당한 대집행에 대해 신속히 이의를 신청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없다. 무엇보다 대집행을 알리는 '계고'라는 절차가 거주자와 동의, 합의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의무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안수용 할머니 사례에도 적용된다.

**유엔인권위원회결의 제77호-1.**

강제퇴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심각한 침해로 선언한다. 2. 정부는 모든 수준에서 강제퇴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는 현재 강제퇴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의 점유 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 사람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등

강제퇴거에 관한 한국의 법 규정은 국제기준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 국제법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거의 없지만 대신 국제기준만큼 한국 법을 개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기준 중 하나인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제77호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강제퇴거를 규제하고 있



2009년 마포구 일대 강제철거로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강제철거를 인정, 보장하고 있다. 강제철거가 인권, 특히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서 심각한 침해'임을 인식한다면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주거권보다 소유권을 우선시하는 법**

또 주거권 물리적 장소로서의 주택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누릴 권리.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도 문제다. 이 부분은 '주거권의 헌법적 보장과 실현 방안, 이득진, 2008'라는 논문을 참고했다. 헌법에는 주거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안수용 할머니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생존에 있어 매우 기초적인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주거권,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법이 소유권, 재산권 중심의 보호체계다 보니 토지와 건물을 소유, 점유하지 못한 자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없다. 안수용 할머니의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를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의 상황과 달리 토지는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위의 건물은 할머니의 사유재산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현재 토지사용자의 점유권보다 우선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 역시 크게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권보다 토지 소유권을 더 우선시한 경우다. 주거가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라면 점유형태나 토지소유형태에 관계 없이 소유권보다 주거의 안정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누릴 권리.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도 문제다. 이 부분은 '주거권의 헌법적 보장과 실현 방안, 이득진, 2008'라는 논문을 참고했다. 헌법에는 주거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안수용 할머니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생존에 있어 매우 기초적인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주거권,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법이 소유권, 재산권 중심의 보호체계다 보니 토지와 건물을 소유, 점유하지 못한 자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없다. 안수용 할머니의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를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의 상황과 달리 토지는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위의 건물은 할머니의 사유재산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현재 토지사용자의 점유권보다 우선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 역시 크게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권보다 토지 소유권을 더 우선시한 경우다. 주거가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라면 점유형태나 토지소유형태에 관계 없이 소유권보다 주거의 안정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법은 공평하다?**

흔히 '법대로 하자, 이게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법적으로 나에게서는 잘못이 없다.'라고들 한다. 하지만 어떤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하고 최종적인 판단과 현실적 구속력의 기준으로서 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일단 법은 학력이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며 분명 한글임에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 알기 어렵다. 게다가 법률 하나에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건물증축에 관해서만 보더라도 증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할머니와 성북구청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법에 접근할 기회조차 다르다. 안수용 할머니의 경우 시민단체,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에서 법률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상 개인이 행정기관 만큼 법률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을 받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법률이 절대적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므로 법에 대해 더 많은 접근 기회를 얻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상황에 있는 일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작지만 성북구청 앞에서 안수용 할머니가 농성을 벌일 때 구청이 소음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결국, 안수용 할머니 문제는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철거를 자행한 성북구청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안일하게 강제철거를 인정하고 주거권보다 소유권을 우선시하는 법 자체도 비판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안수용 할머니 대자보를 처음 본 것은 작년 2학기였다. 당시 대자보를 보며 느꼈던 것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노부부의 사유재산을 빼앗아 간 탐욕적인 정치인과 그가 남발한 허위 공문서를 받아들여 불법행정을 한 성북구청이 비겁하고 '나쁜 놈들'이라는 것이었다. 맞다, 이들은 잘못했다. 하지만 그 잘못의 본질은 생존에 필수적 요소인 주거를 위태롭게 하는 법 제도에 있다. 물론 개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권력자와 행정기관의 공모 의혹을 지울 수 없고 철거에도 불법적 요소가 있지만, 법 제도 자체에 더 중점을 두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 때문이었다. 사건이 오래되어 공모 의혹과 불법적 요소 중에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찌할 것인가. 애초에 고려대학교와 성북구청의 철거는 생존과 연결된 주거권보다 소유권을 우선시하고 강제철거를 인정하는 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당사자 간 관계에 있어서는 성북구청의 주장대로 소유권이나 철거 문제 등에 관한 법적 해석이 할머니의 주장과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할머니의 피해가 축소될 수는 없다. 할머니는 오랜 시간 싸움을 이어오며 정상적인 일상을 보낼 수 없었다. 이 일로 아들이 자살하고 손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며 노부부의 건강도 악화되는 등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버텨왔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법체계와 구청의 행정이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면 차라리 할머니의 주장은 모든 사람이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므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할머니는 성북구청, 고려대, 신재균과 합의를 통해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적절한 보상이란 할머니가 적어도 예전처럼 살 수 있는 조건과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지난 2012년 9월 6일에는 성북구청이



할머니를 지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 두 시에 성북구청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안수용 할머니가 거절한 일이 있었다. 구청은 반성과 보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 2억 7천을 제시했으나 안수용 할머니 측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보상을 받겠다고 했다.

학생대책위 또한 앞으로도 지속해서 연대할 것이며 합의 테이블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27일, 할머니로부터 곧 성북구청장, 구청 감사과의 면담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안수용 할머니 집은 고려대 국제관 담장 바로 뒤에 있다. 할머니는 현재도 철거된 자리에 있는 허름하고 좁은 집 안에 살고 계신다. 19년째다. 하루빨리 노부부가 오랜 세월의 고통을 끝내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법 규정이 소유권보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먼저 보장하도록 수정되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up>고대문화</sup>

# KOMUN ON FACEBOOK



온라인에서도 독자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고대문화가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고대문화에 대한 감상, 질문, 평가, 보고 싶은 기사 등

하고 싶은 말을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들려주세요.

그 중 좋았던 일부는 다음 호에 실어 다시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계정 : 고대문화**

# 새터와 여성주의의 만남, 여성주의와 우리의 만남

헤진 | 문과대학 인문\*반 새터주제 & 수습위원 | prifairy@naver.com



##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새터

매해 2월, 새내기들은 '이제 자신은 고려대 학생 이다'라는 설렘과 함께 2년차 이상 선배들은 겨울 방학 내내 준비한 행사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를 떠난다. 가장 중요한 달력행사로 자리 잡은 새터는 원래는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시절, 새내기들에게 제도권 교육에 의해 주입받은 생각들을 깨고 '운동권'의 문제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지금의 새터는 다르다.

오늘날의 새터는 '대학문화를 소개한다.'라는 목적을 찾았다. 새로운 동기·선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술 게임을 배우고, FM을 배우고, 응원을 배우고, 장기자랑을 한다. '선배와 후배'라는 낯선 관계에서 선배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생활하게 될 이 집단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키는 대로 FM을 하고, 장기자랑을 하고, 주는 대로 술을 마신다. 이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 있고, 처음에는 조금 쭈뼛거리던 사람들도 '고려대'에 입학했다는 '고부심'과 들뜸, 설렘을 따라 한두 번씩 하다보면 기분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지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 불편해하는 사람 또한 분명 있다.

'고려대학교'라고 하면 아직까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술 잘 먹고, 의리 있고, 잘 뭉치는, 드세면서 약간은 거친 분위기. 결혼정보회사에서 '고대여자'라면 드세다는 이유로 등급이 내려간다는 농담은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고려대학교의 이미지가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고려대학교는 드세고 거친 '남성 중심적'인 공간으로 인식된다. 물론 술 잘 먹고, 의리 있고, 드세고, 잘 뭉치는 이러한 분위기를



출발 전부터 설레는 새터

'남성'의 특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므로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성성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태초부터 유전자에서 비롯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남자라면 이리러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성, 여성성이 두 성별 모두에게 강요되며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하튼 이런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는 새터에서 새내기들에게 전달되며 그 수명을 이어간다.

## 새터와 여성주의의 만남

과거 이러한 인식과 분위기는 더욱 심했고, 이에



즐거운 새터,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새터



학내 여성주의운동 &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창간호

맞서 학내 여성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학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성폭력의 원인이 '우리에게 익숙한 학내 문화'에 있다고 규정하였고, 따라서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내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성폭력들이 성폭력이라고 여겨지지도 못한 채 계속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학내 여성주의 운동이 있다는 것조차 생소한 과반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내가 처음 접한 새터, 처음 접한 과반, 처음 접한 대학의 문화는 이러한 여성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다. 처음 대학문화를 접한다는 설렘으로 간 새터에서 받은 자료집에는 '반성폭력 자치규약'이 넓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새터주체 선배는 여성주의에 대해 설명했고, 새터준비위원회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여성주체'라는 선배가, 각 조에는 '보듬이'라고 불리는 선배들이 한 명씩 있었다. 그러나 2박 3일 일정이 끝날 때까지 여성주체가 왜 있는 건지, 보듬이는 무얼 하기 위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보듬이 선배들은 '술 취한 후배들을 챙겨주는 사람'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나에게 남았던 건 '이런 건 왜 하는 거지?' 하는 '의아함'과 '대학에서는 이런 걸 강조하는 구나'라는 신기함 정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새터에서의 2박 3일에서도, 이후에 반생할에서도 여성주의에 대해 내가 느낀 것은 선배들의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 이런 행동 하

면 안 되나" 하는 '조심하는 모습' 정도였다. 여성주의가 뭘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반은 여성주의 기조가 있으니깐 이런 거 하면 안 돼"와 같이 '조심'하는 태도들을 접하면서 의아함만 깊어져 갔다. 간혹 농담 삼아 '여성주의'를 얘기하면서 남학생에게 가방을 들어 달라는 여학생, 모두가 차를 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여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남학생들은 걸어가는 상황 등을 보면서 나의 의아함은 안 좋은 인식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이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기들 사이에서도 '여성주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중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건 왜 하는 거냐'라는 짜증 섞인 불만이었다.

### 쉽지 않은, 어쩌면 불가능한

그 후 '학내사회의 남녀 불평등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여성주의 담론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여성주의의 몇몇 담론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 뒤로 들었던 생각은 '여성주의의 담론을 과반에서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동안 얘기해온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과반에서는 여성주의를 얘기하는 선배들조차 여성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몇몇 개인의 추진력에 의해서만 얘기되고 있기에 여성주의가 조심하는 태도 이외의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1년 뒤, 선배의 입장이 되어 새터를 준비하게 되면서 올바른 전달방식으로 새터에 여성주의 담론을 녹여내고자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성주의는 새터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었다. 여성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반감을 갖

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인 '여성주의를 얘기하는 선배조차 여성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여성주의, 여성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왜,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또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대표에 의해 결정되는 과반의 특성상 대표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라고 혼자 결정할 수는 있지만, 모든 구성원이 '여성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성주의의 의미가 사라진 자리에 강제와 규약만이 남았다.



쉽게 오해받고 구박받는 여성주의

### 우리가 만나야 하는 여성주의

앞에서도 언급했듯 대부분의 과반, 새터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고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의미보다는 문장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과반에서 이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미 없이 남아버린 문장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고 있지만, '그래도 문장이라도 남아 있는 게 어디야'라고 이것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장만 남은 여성주의는 '조심'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남성들은 감정적 가해자이므로 너희 남성들은 조심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남성들의 본능과 성충동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한 본능을 자제하게 해야 하는 것'이 과연 여성주의일까?

여성주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성폭력을 여성과 남성의 본질적, 유전자적 차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여성은 원래 그래', '남성은 원래 그래'라는 식의 논리는 '남성은 원래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성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남성들에게 제공할 뿐이다. 남성들에 의해 잦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남성들의 어쩔 수 없는 본능'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행한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성폭력의 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나도 성폭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의아해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성폭력이 성범죄자 개인의 탓이 아니라니 무슨 뜻이야?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권장하는 사회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독자가 생각하는 성폭력의 의미가 강간이나 성추행에만 갇혀있기 때문이다. 강간이나 성추행만이 성폭력은 아니다. 성적인 차이로 인해 가해지는 모든 부당함이 성폭력이다. 법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해 더 좁게 본다.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충족하고 싶어 하는 여성에게 '여자가 남자 잘 만나서 시집이나 가면 되지'라고 하는 사회적 시선도 성폭력이고, 연애관계에 있어서 남성은 성 관계에 대해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반면 여성들은 걸레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성폭력이다. 뒷담화를 할 때 흔히 여성들을 연애의 대상으로서 얼굴, 몸매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도 성폭력이며, 여성들에게 예쁜 얼굴, 날씬한 몸

때, 흔히 사회에서 여성성으로 규정되는 애교 있는 성격 등을 강요하는 것 또한 성폭력이다. 물론 남성에게 남성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강요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다.

이렇게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성폭력이 행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를 개선하자는 것을 여성주의라고 보면, '남성들은 잠정적 가해자이므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성주의의 취지와는 다른 것인지 알 수 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타고난 본능'으로 설정한다면, 성폭력의 책임은 그 성폭력을 행한 개인에게만 가해지고 사회적 분위기는 개선의 여지를 잃는다.

여성주의에 의하면, 남성은 잠정적 가해자가 맞다. 하지만 여성도 잠정적 가해자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형성된 남성 중심적인 생각을 무의식중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들이 더 가해자가 되기 쉽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탓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이 여성주의이지 '남자들은 원래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깐, 사회적으로 제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본능을 자제하도록 하자'는 오히려 여성주의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남성, 여성 모두이다.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 남성의 본능은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본능을 자제하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개인, 남성 일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본래 취지인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개선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남성들은 잠정적 가해자니깐, 남성들이 조심해라'라고 여성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설명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본능을

억제하고 조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 자체를 개선하자는 것이 진정한 취지이며 이 그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차별적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러나 오히려 "여성주의에서는 남성을 모두 잠정적 가해자로 여기나요?"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대부분은 남자이니깐,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종종 들었다. 사회·문화적 분위기 자체가 원인이라는 맥락을 생략한 채, '남성들이 성폭력자 중 더 많다'라는 현상만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다. '아, 모든 남자들을 잠정적 성 범죄자로 취급하는구나.'라고. 그런 것이 여성주의라고.

### 여성주의와 우리의 일상적 만남을 바라며

세터 준비를 할 때, 우리들은 앞서 이야기 했던 문제점들에서 부딪혔고 필자의 과반에서는 '여성주체'와 '반성폭력 자치규약'이라는 명명을 수정했다. 여성주의의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반은 여성주의'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정적 효과만 낳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두가 다 여성주의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단시간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여성주체'를 '평등주체'라고 바꾸었고 여성주의를 이야기 하는 목적을 정하고 '반성폭력 자치규약'의 내용과 명칭도 정한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앞서 말했듯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강간이나 성추행'등을 떠올리기에 기본적인 단어규정조차 다른 상태에서는 '반성폭력 자

치규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여성주의 담론들을 이야기하는 본질적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었다. 여성주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 자체가 열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의미가 사라진 문구는 더 문제가 되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문구를 버리는 것이 해결책의 끝은 아니다. '의미는 없이 문구만 남은'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해결책은 문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일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정 과반에서, 특정 시기에만 논쟁거리가 되는 여성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성주의적 고민을 쉽게 할 수 있을 때, 여성주의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땅에서는 살기 어려워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전국 곳곳 하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땅 위에서  
사람들의 입김이 말을 한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혜화동 재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평택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



아산 유성기업, “민주노조 탄압중지”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



높이 40m, 2평 남짓한 공간, 체감온도 영하 30도.

# 엄동설한의 초라함이 없다면, 따스한 봄날의 찬란함도 결코 없으리.  
불운은 나를 단련하고, 내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한다.  
「스스로 권면하며」 호치민의 시집.  
그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힘!

**2월 25일** 철탑고공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 트위터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2월 26일은 재능투쟁 1895일, 비정규직 사업장 중 최장기투쟁 되던 날,

2월 27일은 쌍용차 철탑농성 100일째 되던 날

그러나 ‘노동’에 대해 언급조차 없던 **2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2월 25일**

그날 뉴스에 나오지 않은 장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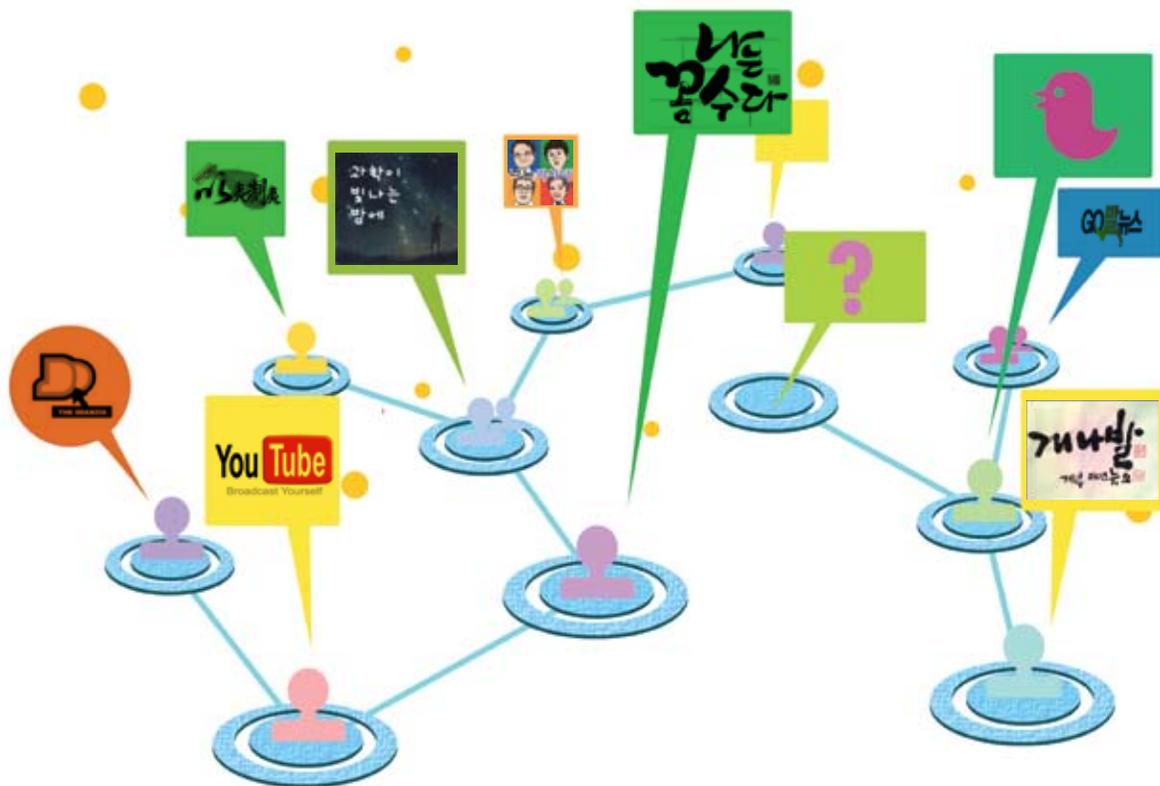
새로운 5년은 1%의 손이 아닌  
99%의 손으로.



# “사람을 향하는” 1인 미디어

## 미디어몽구를 만나다

희재 | 수습위원 | acs6061@naver.com



대선이 막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지금까지의 대선과는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뉴스타파', '나는 꼼수다' 등 소위 1인 미디어가 '판' 쳤던 것이다. 기성언론에서 '보여주는' 대신이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만들어가는' 대신이 되었다. 이제 주류 기성언론과 대비되어 '비주류' 1인 미디어가 떠오르고 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문화산업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나 SNS와 스마트폰의 발달이 미디어콘텐츠의 소재를 정치·경제·사회 분야로 확장 시킴으로써 더욱 전문적인 미디어의 구색을 갖추는 데 일조했다. 블로그·카페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각종 네트워크가 개발되면서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는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파급력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시대'다.

그러나 아직 1인 미디어의 입지는 온전하게 확립되지 못하였다. 현재 1인 미디어는 개인에 의해 생산되는 만큼 기성언론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능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1인 미디어는 이런 한계를 온라인상의 소통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즉, 1인 미디어의 핵심 원동력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인데 이것은 절대 쉽지 않은 문제다. 수없이 많은 1인 미디어가 공감에 실패해 사라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1인 미디어는 어떻게 타인과의 '공감'에 성공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고대문화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에 사회 통념상 '백수'지만 1인 미디어계의 개척자라 불리는 미디어몽구, 김정환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는 정식기자가 아니다. 전문 취재 방법도 몰랐고

사회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거창한 신념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2005년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슈 현장을 누비며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낸 그의 노력은 우리 사회에 값진 양분이 되었다. 지금까지 그의 블로그에는 2500만 명이 방문했고 게시물 조회 수는 5000만 건이 넘는다. 또한 그는 트위터 팔로워가 12만 명에 달하는 파워트위터리안이기도 하다.



뉴스타파 제작이 한창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 수상 및 선정

- \* 제1회 대한민국 블로거어워드 올해의 시사블로거 선정
- \* 제1회 Daum View 블로거 대상 수상
- \* 2010 올해의 온라인 저널리스트 선정
- \* 2012 서울시 공익제보상 수상  
그 외 다수 상 수상 및 각종 포털 우수·추천블로그 선정
- \*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몽구야 어딴니' 코너 진행
- \* 손바닥TV 고정 게스트
- \* <뉴스타파> 영상촬영 담당



**몽구**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초등학생이 댓글을 남겨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아직 어리지만 제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깊은 감동을 하었다고요. 이렇게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감동했다고 말해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글을 썼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은 제가 올린 글이나 사진으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요.

**코** 스스로 보시기에 다른 1인 미디어와는 다른 미디어몽구만의 매력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몽구** 다른 1인 미디어와의 차이라면 저는 한 길로 쪽 묵묵하게 걸어왔다 이거죠. 어디에서 이슈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오로지 한 길로만 쪽 왔어요. 기득권층에게서 좋지 않은 유혹이 왔을 때 몇몇 분들은 넘어가시기도 했지만 전 다 뿌리쳤어요. 신뢰받기 위해서요.

한편으로는 기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취재하면서 다른 정식 기자들에게 ‘한날 블로거’라며 소외당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 들었던 게 제 뒤로 따라오는 1인 미디어들한테는 편하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나 발판을 마련해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묵묵하게 항상 현장에 있을 수 있었어요. 글에서 느껴지는 저만의 매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호소력이 있대요. 제가 올리는 영상이나 글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분이 꼭 도와줘야만 한다는 걸 느낀다네요.

**코** ‘사람을 향한다’를 모토로 갖고 계시는데 구체

적으로 취재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 건가요?

**몽구** 일단은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 제가 보고 싶은 분야로 가요. 네티즌이 가라는 곳이 아니라요.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남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엔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 혹은 꼭 가서 도움을 줘야겠다 싶은 곳을 가요. 그런 데를 가야지만 제 진심이나 진정성이 영상에 묻어난다고 보거든요. 또 거기에 네티즌의 관심과 어느 정도 공감까지 얻는다면 더 좋죠.

**코** 홍대 청소노동자분들과 연대하셨잖아요. 지금 고려대의 청소노동자분들도 매년 투쟁하시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몽구** 고대나 연대나 청소노동자분들이 집회하는 거 연락이 와요. 근데 요즘 뉴스타파에서 준비하고 일하다 보니까 못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식 같은 건 다 듣고 있어요. 지방대 같은 경우도 청소노동자분들 소식은 항상 다 듣고 있어요. 홍대가 당시에 소위 ‘지성의 공간’이라고 불리는 대학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노동자분들을 사람 이하로 대하고 또 연말에 노동자분들을 해고했어요. 그분들이 새해를 절망으로 맞이하시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갔었죠. 이제 잘 돼서 좋은 거 같아요.



**코** 우리 사회에서 1인 미디어는 어떤 역할 또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몽구** 1인 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분들의 곁에서 네티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분들 같아요. 기존 언론에서도 오긴 하지만 그분들은 기사원칙이나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집회나 투쟁현장에서 항상 곁에 있으면서 그걸 온라인으로 알려주는 존재 같아요.

**코** 그러면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1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몽구** 많죠. 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시대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인터넷 정책 같은 게 바뀔 경우 1인 미디어는 타격이 크거든요. 블로그나 카페에 포스팅을 할 때 시사분야는 일정 부분 제한하라고 하는 경우 연결통로가 인터넷밖에 없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이요. 그래서 꾸준히 하실 분이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기존 매체보다 더 고생하는데 매번 저 혼자만 이런 식으로 주목받아요. 저뿐만 아니라 생활이 열악해도 계속 현장에 나가서 곁에서 소식 전해주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안타깝워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어디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제 블로그는 블로거들끼리 노는 세상에서 뛰어나와 하나의 미디어가 된 것 같아요.”

**코** 미디어몽구씨는 사람들의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에도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1인 미디어를 활용할 때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몽구** 저 같은 경우는 반값등록금 촬영을 가도 날마다 나오는 어떤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은 찍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어려움을 호소하러 나온 대학생들을 찍거든요. 등록금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사연 같은 걸 강조하는 것이 더 호소력 있다고 봐요. 그리고 등록금 안 낮춘다고 분노하는 것보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사연을 많이 알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위안부 할머니들인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망언한다고 분노하지 않고 피해자분들 곁에서 목소리 대신 내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야만 다른 분들이 ‘이런 사연이 있구나.’ 더 공부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두고 그러시더라고요. 화만 내면 금방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을까요.

**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몽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요. 나중에

어디에 안착은 하겠죠. 그래도 1인 미디어를 버리진 못하겠어요. 제 젊음이 모두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된 어떤 일을 하거나 언론인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게 제 목표이자 꿈이에요.

**코 고려대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몽구** 고대생이면 스펙은 진짜 좋잖아요. 근데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고 들으면서 알아가는 것보다는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또 요즘 학생들은 아주 당당하잖아요. 자기 할 말 다하고. 아무튼 바닥 생활을 많이 겪어보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도 많이 해보고 사회 체험하면서 익혀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보다 대학생으로서 직접 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면서요. 그게 뭐 꼭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도... 그것과 더불어 인성도 기르고요. 일단 사람이 되어야 어딜 가든 대접받으니까요. 머리로 알려고만 하지 말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닌 우리의 한 사람이 되기를”**

인터뷰를 마친 미디어몽구 김정환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주류'들이 관심 두지 않는 곳을 비추고 '사람'을 향하는 그의 모습은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1인 미디어라는 통로를 통해 개인은 혼자 힘으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데서 나아가 다른 개인들과의 공감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대 1인 미디어의 개척자로서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미디어몽구 김정환 씨,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사회 전방에 스스로 나서며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당신'을 응원한다. **김정환**



# 고대문화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고대문화는 학우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관심있는 주제를 다룬 글이나 학내외의 일에 대한 생각을  
A4 2매 안팎으로 보내주세요.  
만화, 만평 등 다양한 형식들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komun@komun.net](mailto:komun@komun.net)  
문의 | 02-927-7197, 010-9797-8317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5만원)을 드립니다.

# 캔디는 죽지 않는다 다만, 조금 달라질 뿐이다

에서 | 수습위원 | yeseoji92@gmail.com



새내기 때 조금 민망했던 기억이 있다. 한 선배의 노트북을 봤는데 화면이 아주 예뻐다. 물어보니 운영체제가 당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윈도 7이었다. 나도 그것을 쓰고 싶어서 학교 포탈에서 내려받았다. 그런데 기껏 깔아놨더니 부트할 때마다 오류가 나는 것이었다. 이상해서 그 선배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네 넷북은 사양이 낮아서 안 되는 거야.” 한 마디로 내 넷북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윈도 7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비슷한 예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지난 1월에 종영한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이하 ‘청앨’)는 바로 이러한 ‘처지’에 대한 내용이다. 나의 넷북이 윈도 7을 쓸 수 없는 사양이었듯 ‘청앨’에는 태어날 때부터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가질 수 없는 부와 명예는 특수한 지명인 ‘청담동’이라는 단어 안에 압축된다. ‘청담동’은 ‘명품’과 ‘부유층과의 교제’로 변주되며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역할을 한다.



‘노력이 나를 만든다’고요? 정말?

드라마를 보지 않은 독자들도 있을 테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보자. ‘청앨’에는 세경(문근영)이라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청담동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처지에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고교 때 양숙이었던 동창 윤주(소이현)처럼 청담동에 거주하는 남성과 결혼하기 위한 노력이다. 여기까지 보면 ‘청앨’은 매우 식상한 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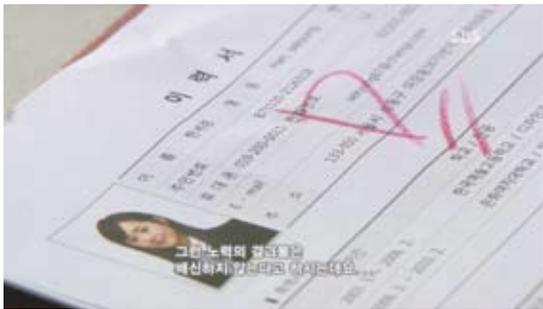
마로, 세경은 흔히 나오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가진 인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그저그런 이야기로 치부하고 끝내기에는 드라마를 보는데 들인 시간이 좀 아깝지 않은가. 그러니 ‘청앨’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세경이 어떤 처지에 있었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저 수많은 아파르트들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어

‘이전의 드라마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청앨’은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 차별화된 지점들은 초반에서 중후반으로 흘러감에 따라 달라졌다. 우리가 알아보려는 세경의 타고난 처지는 극 초반부에서 볼 수 있다.

초반 4회 정도의 분량은 주인공의 비참한 처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드라마에서 ‘비참한’ 주인공이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허름한 단독주택이 떠오르고 사채업자들이 대문을 발로 쿡쿡 찧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익숙한 풍경이 그려진다. 그리고 그 뒤에는 늘 주인공 혹은 그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어느 부유한 악인의 간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디 가당키나 한가. 대기업 회장이 유독 우리 집만 미워해서 괴롭히는 일이나 머리를 뺨뺨 민 거구들이 온 동네 떠나가라고 함을 지르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일들 말이다. ‘청앨’의 계층 몰락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다른 드라마들과 차별화되었던 지점이다. ‘청앨’이 그런 현실은 말 그대로 매우 현실적이다.

세경이라는 개인의 몰락을 먼저 살펴보자. 괜찮은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각종 자격증, 공모전 입상 등 소위 스펙에서도 빠지는 데가 없지



만 그토록 바라는 취직이 되지 않는다. 세경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하는데 그쪽 업계에서는 유학파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그가 채용될 리 없다. 그는 2년째 취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마지막 면접에서도 전체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고 꼴찌가 되었다. 그러면 세경의 가족은 어떤가. 동네 빵집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길 건너에 들어선 대형 마트가 빵을 한 봉지 당 이천 원에 팔며 물량 공세를 벌이는 통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가게를 열기 위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아직 못 갚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셋값이 치솟을 때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의 가격은 정확히 반 토막이 났고 이것 또한 갚지 못했다. 거기다가 세경과 여동생의 등록금을 대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도 갚을 길이 묘연하다. 이자만 불어나는 중이다.

물론 집안이 부유하거나 ‘굶더라도 빛은 없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사시는 부모님을 둔 독자라면 여기저기 쌓여가는 대출금과 이자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이것저것 스펙을 쌓아도 취업할 수 없는 냉혹한 고용불안의 현실만큼은 드라마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이를 먹고 사회인에 가까워질수록 부모님의 근심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 또한 남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가장 확실한 것,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 정도는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청엘’에 담긴 이 구질구질한 불행들은 우리의 삶에서 혹은 우리 이웃의 삶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기에 단지 머리로만 인식하게 되는 비참함이 아니었다. 또 기존 드라마에서 어려움에 부딪힌 인물이 ‘빛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꾀꾀하게 살아갈 거야!’라고 웃으며 말했던 것과 달리 ‘청엘’의 인물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몇 원 정도



의 빛을 지게 되었는데 나는 기껏해야 몇 원 정도를 벌 수 있으니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막막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한 친구는 ‘청엘’ 첫 회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다. “드라마에 왜 부자들만 나오는지 알았어. 드라마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눈앞에 보여주니까 차마 못 보겠더라.”

세경의 처지가 이러하다보니 왜 그가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려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이런 처지에서는 그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 그의 꿈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취직하지 못했기에 집안에서 떳떳하기가 어렵고 친구들 사이에서 당당하기도 어렵다. 대출 빚 독촉장으로 가득한 거실에서는 단란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도 없다. 또 자신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 남자친구 인찬(남궁민)에게 든든한 연인이 될 수도 없다. 어디에서나 세경은 당당한 ‘나’ 자신으로 서기 어렵다. 그러니 당연히 그 처지를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취직도 안 되는데 돈을 벌 수 있을 리 없고 돈은 벌어도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다. 대출금과 이자를 갚다 보면 10여 년은 훌쩍 지나갈 것이고 그때쯤 되면 이제 자식들 교육이니 내 집 마련이니 해서 거금이 필요해진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또 빚을 내야 할 테다. 이래서야 처지를 벗어나는 것은 완벽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린다.

죽도록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엘’은 청담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리 뭐 같아도 내 자린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얻었다는 거야**

위에서 잠깐 언급한 윤주라는 인물을 다시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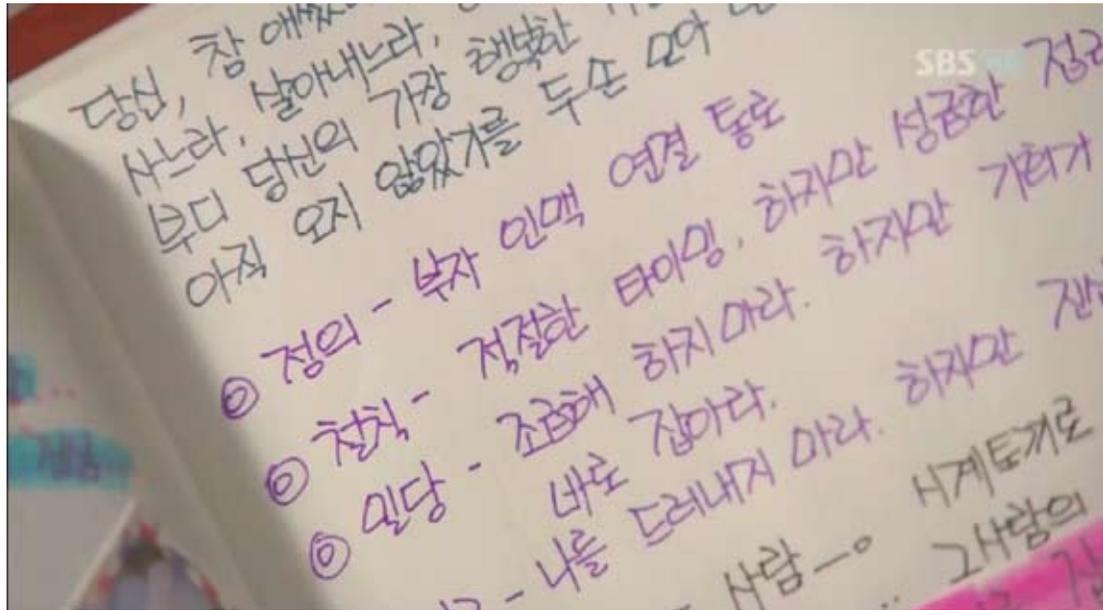
세경의 고교 동창이며 청담동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 바로 그 윤주다. 그녀 또한 세경과 별다를 바 없는 처지에 있었다. 오히려 고교 시절 뛰어난 그림 실력 덕분에 늘 위풍당당했던 세경과는 달리 집안이 몰락한 탓에 미술 대회 상금이 급해서 남자친구에게 그림을 대신 그려달라고 했다가 들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윤주는 세경이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울 비싼 명품들을 내키는 대로 사들이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어쩌서? 그녀가 ‘청담동’에 거주하는 의류회사 사장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고등학교 때 머리채 뜯고 싸우던 동창생이 지금은 청담동 사모님이 되어 있다. 그것도 내가 파트너임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

세경은 아무리 타고난 처지를 극복하려 노력해도 결국 그 처지에 발목 잡힌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윤주만은 다르다. 그는 그러한 처지에서 자아실현이 가능한 청담동 사모님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이다. 심지어 ‘노력과 능력’을 통해 이룩한 공적이다. 윤주는 그런 점에서 세경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된다. 타고난 족쇄를 벗어버릴 기회가 영영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청엘’은 여기서부터 변신한다. 사실 이제까지 가난이라는 궁지에 몰린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은 대개 부유한 남성과의 결혼으로 그것을 타개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청엘’은 다른 드라마와는 다르다는 것이 특징 아니었던가. 이전 드라마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끝까지 희망을 버



세경은 윤주에게서 시크릿 노트를 전수받는다. 그 안은 '청담동 입성 비결'로 가득 채워져 있다.

리지 않는 인물들이었다. 등장인물 소개에 상투적으로 들어가 있는 '캐디'라는 단어처럼 거듭되는 고난에도 오뎅이처럼 일어서는. 그렇게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대기업 이사회 회장의 아들이 어스새 그의 밝고 순수한 모습에 매혹되어 제 발로 찾아오는.

세경은 이런 인물형과는 달랐다. 똑같이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노력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은 이미 버렸다. 오뎅이처럼 냉혹한 사회의 일격을 얻어맞고 이미 자신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다. 그래서 그는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베풀었고 두 눈은 신분상승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찼다. 자신을 찾아올 부유층 남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그런 이들을 찾아갔다.

이런 세경의 모습을 마냥 신선하게 볼 수 만은 없다. 그는 이미 현실의 부조리함을 체득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몇몇할 수 있는 사람이란 돈 가진 자

뿐이기에 스스로 그렇게 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순이 느껴진다. 세경이 원하는 대로 결혼해서 청담동에 거주하는 부유층이 되었다고 치자.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또 제2의 한세경이 빛에 쫓리며 어디에도 없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을 것이다. 세경이라는 개인의 위치만 불리한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현실은 공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돌아간다. 돈이 없어 무시당하고 움츠러드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전체의 계층 구조는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개인의 지위만 다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청알'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청알'의 등장인물 중에는 부유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궁극적 요인 또한 돈이다. 청담동 머느리가 되는데 성공했지만 언제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윤주, 아내가 자기 자신이 아닌



이들은 지금 '가진 것이 많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중이다.



자신의 재산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하는 윤주의 남편, 사람들이 돈을 보고 자신에게 접근할까 봐 경계하고 불신하는 명품회사 회장 승조(박시후), 돈이 얽힌 문제로 아들과 갈등이 생겨 의절 상태에 있는 차일남 회장 등. 사랑이나 가정의 행복, 꿈의 실현 등은 돈이 없어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이들을 보니 그렇지 않다. 있는 사람은 있는 나름 그것들이 어렵다.

있든 없든 돈 때문에 힘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알' 1화에 나오는 세경의 대사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다. "이 (명품 가방의) 체인이 자신의 잃어버린 자아의 한 조각 같대." 이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명품 가방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산 자체가 그들의 가치를 표상하는 상황에서 가진 것 없는 세경은 자신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기에, 없는 것이 없는 승조는 오로지 돈에 의해서만 평가될까 두려워하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청알'은 이 사실을 드라마 속에서 자명하게 보여주면서도 세경에게는 스스로 부유층이 되는 선택을 최선이라 부르도록 했다.

### 잠깐만요, 지금 당장 파리를 간다고요?

드라마 초반부의 평을 뜨겁게 했던 지극히 현실

적인 현실마저도 중후반부에 들어서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처지를 벗어나려고 했던 세경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는지 떠올려 보자. 세경은 명품회사의 한국지사 회장인 승조와 결혼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모습들이 보인다.



크레페 먹으러 파리에 가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는 '청알'에서 세경에게 일어난 일이 현실에서는 절대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느 외국계 회사의 회장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비정규직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체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인가. 애초에 그들은 마주칠 일조차 없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이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더라도 하듯 승조는 어느 날 갑자기 데이트하자며 공항으로 세경을 데리고 간다. 지금 당장 파리에 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세경에게 여권이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게 되기는 했지만.



재벌 회장이 빚쟁이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승조가 세경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도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결국에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남자친구에게 헌신하는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는 이야기다. 세경이 욕망을 갖고 승조에게 접근했다는 점에서는 '청앨'이 다른 드라마와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나 결국 승조가 세경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순수하고 착해서'라는 이유로 똑같다. 그러나 청담동 사는 어느 회장이 순수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세경과 같은 이를 따라다니겠는가.

윤주와 세경을 비교해보면 이것은 더욱 명확해진다. 윤주가 전전긍긍할 때 세경은 당당하다. 윤주가 비판할 때 세경은 낙관하고, 윤주가 무시하는 것들을 세경은 소중하게 여긴다. 세경은 윤주와 다르게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솔직함, 순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윤주는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들키자마자 집안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등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되었던 반면 세경은 끝내 승조의 총체적인 사랑을 얻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세경은 독해졌지만 독해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순수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청앨' 초반부의 메시지는 너무 강력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통해 너무 잘 알게 되었다. 사랑, 순수함, 솔직함, 신뢰로는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구질구질한 처지를 타개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

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노력으로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는 말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안 달라져"라는 인찬의 대사가 더 가깝게 들리는 현실을. '청앨'은 이런 대사를 첫 회에 사용했음에도(태어날 때부터 낮은 계층 지위를 타고났다면 무슨 짓을 해도 그 처지를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력히 피력했음에도) 주인공인 세경에게 '순수함과 믿음이라는 타고난 면모로 성공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엔딩이 뭐죠?

비록 '청앨' 속 현실은 많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마지막으로 갈수록 현실에 충실했던 인물이 있었다. 바로 세경의 표적이었던 승조다. 시청자들은 청담동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 우여곡절을 겪는 세경이 앨리스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앨리스는 승조였다. 비현실적인 꿈을 꾸다가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앨리스.

그는 '청담동'이라는 거대한 담장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불행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돈을 보고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닐까 노심초사했다. 그랬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하려 했고 그



승조는 아버지와 절연하고 프랑스에서 빈털터리로 살던 시절, 경매에 부쳐진 자신의 그림을 3만 유로에 시간 '누군가' 덕에 타고난 처지의 도움 없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아버지였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철저히 부정했다. 그는 청담동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본래 가지고 태어났던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가치를 새로이 창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성공했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기에 돈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밝혀진 윤주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고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나게 한 아버지 차일남 회장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드라마가 끝날 무렵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 순수하게 자신과 사랑에 빠진 줄로만 알았던 세경은 윤주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승조가 그린 그림을 비싼 값에 경매로 사들여 그를 빈털터리에서 구해준 장본인은 아버지 차 회장이었다. 세경은 승조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도 했지만, 그의 조건을 보고 접근하기도 한 만큼 청담동은 승조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이었다. 배경 없이 자수성가했다고 여기려 했지만 사실은 부잣집 아들이었기에,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런 성공이 가능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승조는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그는 특하면 현실을 부정했었지만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세경과 다시 만나고 아버지와의 화해한다. 자신에 대한 세경의 사랑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승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이루어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앨리스는 차승조인 것이다.

승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처지를 가진 자기 자

신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세경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세경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사랑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돈을 보고 결혼하려는 존재.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가지 면만을 오롯이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전형적인 인간은 없다. 승조의 결말에는 인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녹아들어 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 화가 나 있지만  
화난 척해서도 안 되고  
화가 났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안다'**

여전히 '청앨'의 현실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현실의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현실 사회의 문제를 파헤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세경이라는 인물에게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주지는 못했다. 가난한 세경이 '팔자를 고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승조의 '트라우마 극복기'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드라마였다. 세경

1 마지막회에서 승조와 이별하고 다시 고용 불안의 현실로 돌아온 세경의 대사다. 초반과 다르게 현실에 대한 저항과 분노는 많이 무력해졌다.



심지어 드라마에서 '백마 탄 왕자님'으로 나오는 송조 역을 맡은 배우는 요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어 온국민의 환상을 다 깨주고 있는 중이다.

은 단지 원래 본인의 모습대로 진심과 신뢰를 보여 줌으로써 송조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시계 토끼<sup>2</sup>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오히려 마지막회에서 세경은 자신의 열악한 현실을 수용하려 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초반부의 지극히 현실 같은 현실을 지켜보며 '청앨'에 기대를 걸었던 게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초반부의 내용은 단지 중후반부에 나올 부유한 남성과 가난한 여성의 로맨스를 좀 더 신선하고 인상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소재로 활용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초반부에서 구질구질한 현실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청자에게 희망과 긍정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중후반부부터는 또다시 현실과 영동떨어진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일지도.

드라마는 책,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 미술작품 등과 같이 픽션을 들려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들에 비해 훨씬 대중에 가깝고 쉽게 소비된다. 그렇기에 드라마를 만든다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중에게 그들이 꿈꾸는 바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줄 것인가.

대중은 드라마를 통해 비현실적인 것들로 대리 만족을 하며 꿈을 꾸고 위로를 받는다고들 한다.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대중이 원하는 것이 정말 그것인지는 찬찬히 돌아봐야 할 일이다. 정말 그들은 현실에 없는 꿈 이야기에 취해 마치 사방이 막힌 병동에서 모르핀을 맞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할까. 현실을 깨닫는데 30년 가까이 걸린 송조와 달리 대중은 텔레비전만 끄면 바로 꿈에서 깨어나는데 말이다. 어쩌면 대중이 꿈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기보다 드라마가 이제까지 그들에게 꿈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청담동 앨리스』가 '현실' 이해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대중의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드라마를 많이 만나볼 수 있길 바란다.

<sup>2</sup>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따온 것이다. 동화에는 앨리스를 이상한 나라로 인도하는 시계토끼라는 존재가 나온다. 드라마에서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였다.

# 고대문화 편집위원회에서 78기 수습위원을 모집합니다

고대문화편집위원회는 한 학기에 두 번 '교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학교 예산이 아닌 교지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이 실려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실어야 가장 의미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글 하나부터, 함께 공부할 내용, 단체의 운영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위아래도 없고 발언권의 차이도 없습니다.

**고대문화편집위원회는 치열한 고민을 통해 세상에 써낸 글의 힘을 믿습니다**  
**고대문화의 흰 페이지를 함께 채우고픈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원방법** | 아래 적힌 지원기간 내에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연락해주시고  
개별면접기간 중 편하신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세요.

**지원기간** | 3월 11일(월) ~ 3월 20일(수)

**개별면접기간** | 3월 18일(월) ~ 3월 20일(수)

**장소** | 인문계 학생회관 3층 고대문화편집위원회

**연락처** | 02-927-7197(편집실), 010-9797-8317(시웅)

**Email** | [komun@komun.net](mailto:komun@komun.net)

**Website** | [www.komun.net](http://www.komun.net)

**Facebook** | 고대문화

개별면접 당일, 간단한 글쓰기와 면접이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집실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 이왕이면 만화를 더 잘 읽기

김낙호 | 만화연구가 | capcolds@gmail.com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작업이 대중문화 분야의 평론이다. 대중문화는 별다른 설명이나 배경 학습 없이도 대중들이 곧바로 몰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에 바로 '대중'문화다. 누가 혼수를 두지 않아도 대중은 알아서 즐기고 있으며, 무엇이 옳다고 가르치려 드는 것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지성주의 같은 거창한 말을 꺼내려는 것이 아니다. 누가 무언가를 혼계하는 순간, 스스로 알아서 즐기는 재미가 떨어지기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기에 작품의 의미를 탐구하는 평론보다는 작품을 골라주는 평론이 많고, 재미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재미있다고 공감할 구하는 소개 위주로 가곤 한다. 그냥 많이 읽어본 사람이 대중 자기 재미있는 것을 골라줄 따름이며, 읽는 것부터는 각자의 몫 따름이다.

어쩌면 대중문화에 대한 감상능력이란, 마치 누가 심층 학습을 시켜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몇 번 씹 넘어지면 알아서 잘만 깨우치는 걸음마와도 비

슷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그냥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잘' 달리고 싶다면, 이왕이면 당연해 보이던 그 과정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깅인지 마라톤인지 어떤 식으로 달릴 것인가에 따라서 자세도 교정하고, 호흡법도 가다듬고, 식이 조절도 한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수련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에게 배우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식이다.

만화라는 대중문화의 꽃을 **일도마저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림과 글을 총동원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많은 이들에게 작품의 내용과 정서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읽는 것 또한 같은 비유를 적용해볼 수 있다. 만화를 재미있게 읽는 것은 알아서 할 줄 알고, 취향에 맞는 만화를 소개받는 것은 그냥 친구들이 요새 뭘 읽었는지 직접 묻든 페이스북을 눈팅을 하든 정보를 모아보면 된다. 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깊숙한 재미를 얻고 싶다는 호기심이 있다면, 즐기는 김에 뼈와 살로 흡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다면, 그러니까 시간과 주의력을 할애하는데 이왕이면 만화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싶어졌다는 기분이 들었다면, 혹은 기타 어떤 거창한 욕망이 생겨났다면, 약간의 가이드를 참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짧은 지면에서 무슨 '만화 깊게 읽기' 세미나를 열자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런 관심들이 허무한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만한 첫 단추쯤으로, 즐길의 몇 가지 유형과 방법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장거리 조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쥐나니까 천천히 시작하고, 들숨 날숨 좀 내쉬라는 수준의 팁 정도다.

## 공감대

만화를 잘 읽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만화를 왜 읽는지 자문하는 것이다. 누가 숙제로 내준 것이 아니라면, 답은 거의 항상 "재미있으려고 읽는다" 정도다. 그런데 그 재미는 아주 거칠게 나눠도 크게 두 가지 초점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작품 안에서 자신에게 전달되는 무언가에 즐거워하는 내적 동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품을 지렛대로 하는 사회적 효용이다. 예를 들자면 전자는 『마음의 소리』(조석)의 성공적 개그를 보고 웃음이 터지는 것이다. 후자는 "이번 화 빵터짐"이라고 트위터에 올려서, 나는 이런 것을 재미있어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런 센스 있는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기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다.

내적 동조라는 즐거움은 문학 교육에서 늘상 배

그냥 우연히 인공지능과 상대하는 대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다.



마음의 소리 ©조석

워운 재미의 규칙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담아낸다. 결국 독자와 이야기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작품은 캐릭터에 대한 감정이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직관적 납득을 시키거나 기타 여러 방식을 시도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가장 원초적으로는 소소한 일상 상황에 대한 묘사를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놓는 소위 '공감툰', 가장 복잡적으로는 현실사회의 어떤 복잡한 정치적 일면을 은유적으로 녹여낸 대하 SF서사 만화 같은 것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내적 동조라는 측면에 대해서 더욱 깊숙하게 즐거움을 파고들 수 있는, 즉 '더 잘 즐기는' 필살 팁은 무엇일까. 이런 비급을 아무렇게나 노출하면 곤란하겠지만, 특별서비스로 만천하에 공개하도록 하겠다.

바로...

"이 작품, 나한테 왜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다. 허망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정석이다. 즐길의 순서는 이유를 먼저 알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고 이유를 생각한 후 그것이 더 큰 즐거움으로 피드백되는 구조다.

왜 어떤 작품들은 내용이 잘 공감되는가. 보통은, 소재가 딱 내 인생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일면이 있는

줄도 있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작품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건져 올려주기에 공감을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방향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주인공들을 다루고 있는 만화 『무한동력』(주호민)은 소재로만 봐도 충분히 오늘날 청년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끌기 좋은 내용이다. 하지만 소재뿐이라면 누구



무한동력 ©주호민

든 취직 소재만 다루면 공감대를 사고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최근 인기 주류 만화 가운데 이 작품만큼 그 소재를 공감대 넘치는 재미로 다뤄낸 경우가 드물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자신이 갖추지 못한 스펙에 대한 말 그대로 손발이 오그라드는 불안, 처지는 급박한데 오히려 스타크래프트 한 판으로 도피하는 심경들, 이왕이면 번듯한 직장(사회적 편견에 의하면, 연봉 높은 사무직)에 들어가겠다는 현실적 소망, 그리고 그 안에서 한번 변변히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았던 꿈의 이야기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런 일면을 품고 있을 법한데 있고 있었던 것을, 작품을 통해서 자극받는다.

공감대는 개인의 처지를 넘어서기도 한다.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반대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숨진 철거민들의 사연을 그려낸 『내가 살던 용산』(김홍모 외)을 읽을 때, 자신도 철거민이기에 공감대를 느끼는 이들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반사회적 파괴분자들이 아니라 그저 자리 잡고 장사 좀 해보려던 평범한 이들이 어찌다가 망루에 올라가게 된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도시민들의 모습으로서의 사회적 공감대를 서서히 느낄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이해관계나 세부적 처지 등을 넘어, 한 사회를 살아가는 대등한 구성원들로서 사람들의 사연을 바라보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고

민하게 되는 마음, 즉 연대의식을 싹 틔우는 것이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도,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 『야옹이와 흰둥이』(윤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개와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표현하는데, 많은 대사와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장치들 없이 담담하게 노동 현장의 여러 수탈들과 서로에 대한 조그마한 호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효과적이다.

물론 공감대는 은유적일 수도 있다. 현실세계와 매우 다른 모습이 설정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독자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에 계속 읽도록 붙들어 놓는다. 『안되는건 안되는거다』(홍작가)는 현대의 한국을 무대로 하면서도, 마법과 주술이 난무하며 인간과 동물의 영혼이 바뀌고 사람들이 미이라화되어 죽어나간다. 실없는 코미디와 조폭 액션, 환각마법에 대한 대처 같은 이질적 요소들이 마구 섞이며, 특정 캐릭터에 대한 감정이입을 하기에는 각자 조금씩 나사가 빠져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뛰어난 즐거움을 주는 공감대의 끈은, 욕심과 명청함, 충직함과 콩가루 관계가 고루 섞인 시끌벅적한 부대낌에 있다. 개성 강한 이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어찌다가 한 팀으로 묶이고, 그 안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비록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어떤 공감대를 올린다.

내 이야기의 어떤 일면을 어떤 작품이 함께 알아주고 나아가 내게 재발견의 기회를 만들어줄 때,



내가 살던 용산 ©김수박, 김성희, 김홍모, 신성식, 양교, 유승하



야옹이와 흰둥이 ©윤필

공감대의 즐거움이 생긴다. 내가 이 작품의 어떤 부분에서 공감대를 느꼈는지 되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은 크게 늘어난다.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그때는 슬슬 깊숙한 독자로 발을 딛게 되고, 더욱 레벨을 올려서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자 언어로



안되는건 안되는거다 ©홍작가

표현하기 시작하면 최고의 즐거움이 시작된다. “이것 짱 재밌음”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겪는 이런 현상들을 다시 바라보게 됨”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 뽀내기

작품의 내적 공감대만큼이나 중요한 즐거움은 바로 사회적 효용이다. 내가 이런 작품을 읽는 사람이라고 주변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미디어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도 정체성 확인 및 사회적 연계가 매체 이용 동기의 주요 범주에 늘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여 향유하는 이유, 즉 그들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가를 탐구하는 미디어학 이론 만화로 치자면, 나는 이런 만화를 좀 읽는 센스쟁이라고 으스스대는 것이다. 강도에 따라서 자기만족이든 극강의 허세든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즐거움의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회적 즐거움도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장르 팬들 사이에서의 어울림이다. 장르는 SF, 판타지 등 특정한 내용 분류에서 전형적으로 기대되는 소재 및 전개 패턴을 최대한 따라가는 접근법의 대중예술 창작물을 말한다. 내가 이 작품의 장르적 재미를 이만큼이나 자세히 즐기고 있다고 과시하며,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

고 즐긴다. 물론 장르물이라는 것은 내적 재미의 측면들을 충분히 갖고 닦았기에 인기를 끌지만, 종종 그 과정에서 재미의 코드가 지나치게 기성품화되어 세부적 공감대의 폭은 마모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개별 작품으로서 즐기는 것을 넘어 장르의 일부로서 즐기는 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즐거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세계관 설정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다투기도 하고, 작품에서 다루지지 않은 방식으로 캐릭터들 사이의 또 다른 관계 맺음 가능성을 상상력으로 채워넣기도 한다. 그런 상상력을 2차 창작물로 만들어낸 것이 ‘팬 픽션’, ‘동인지’ 등이다.

기본적 오락성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고, 그중에 아무래도 세계관 설정이 크고 세밀한 작품들이 이런 즐거움이 크다. 우주규모로 칼싸움을 벌이는 SF 『나이트런』(김성민)이나 몇 개 시대와 여러 세계와 신들을 체계적으로 짜놓고 풀어가는 판타지 『쿠베라』(카레곰) 같은 장르물들이 좋은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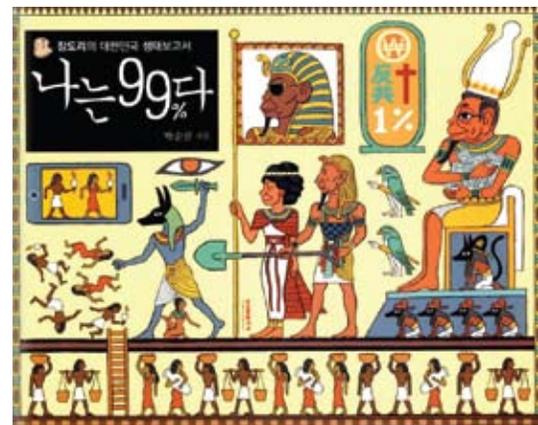


나이트런 ©김성민

이런 작품들이 어떤 측면에서 장르적 코드들을 잘 풀어나가고 세계 설정을 절묘하게 다듬었기에 팬들로 하여금 서로 대화를 나누게 만드는가. 절묘하게 심어놓은 복선을 발견하여 이후를 예측하는 것이 주는 즐거움은 어떤 식인가. 계속 깊게 파다 보면 팬끼리 서로의 애증을 견주며 작품을 함께 즐기는 것을 넘어, 팬 커뮤니티 자체에 관한 관심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혹은 지난 십 수년간 만화의 문화예술 지위 확보를 하겠다는 목적의 일환으로 좁은 평론계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방향인, 사회적 책임감이나 예술적 무게감이 전면에 드러나는 만화들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최소한 “교양 있는 사람”으로 허세를 부리기에 매우 적합하며, 그러다 보면 오락성의 코드가 약해서 단번에 잡아내지는 못했으나 사실은 고이 심어져 있던 공감대의 내적 즐거움도 함께 발견해낼 수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책을 고급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서가에 꽂아놓았을 때 책등이 예쁘다.

사회적 책임감을 내세우는 만화라면 역시, 세상의 모순과 갈등들에 대한 직시를 담아내는 작품들이 좋다. 이런 작품들을 열심히 접하면서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을 과시하고, 운이 좋으면 정말로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나는 99%다』(박순찬)



나는 99%다 ©박순찬

같은 날카로운 시사만평 모음부터 『먼지 없는 방』(김성희) 같은 특정한 비극적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 요소들을 파고드는 작품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작품들이다. 당장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을 즐겨보기 위해서는 사건 자체를 알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껍데기 시사 상식이 아닌 그 안에 들어 있는 속알맹이 논점들에 대한 시각을 키울 수 있다.

비단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점령하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갑갑한 생활을 담은 『팔레스타인』(조 사코) 같이 어떤 ‘상태’를 전하는 작품을 보는 것도 좋고, 『브이 포 벤데타』(앨런 무어, 데이브 로이드) 같이 파시즘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그려내는 작품도 괜찮다. 그저 기억해 뒤야 할 점은, 남에게든 자신에게든 무언가를 제대로 과시하여 즐거움을 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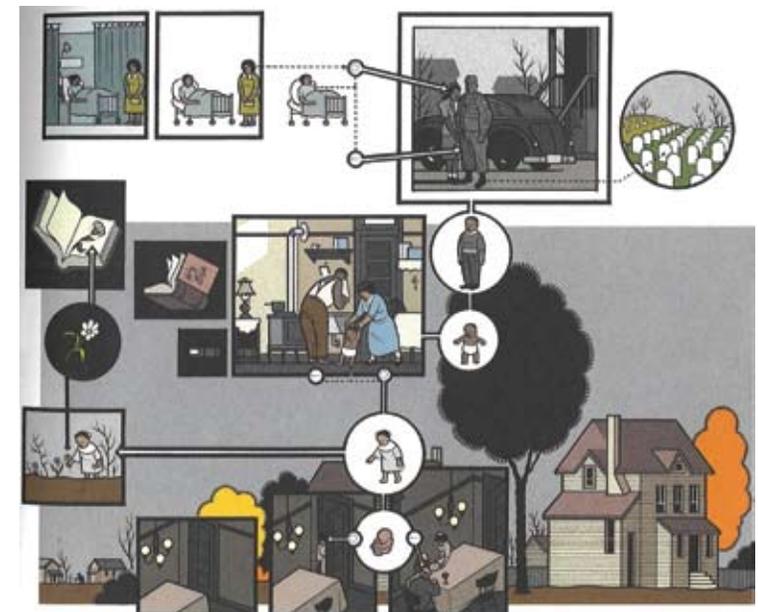


브이 포 벤데타 ©앨런 무어, 데이브 로이드

위해서는 결국 그런 작품들이 담아내는 내용도 온전히 즐기고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정도다.

예술적 무게감의 측면은 한층 사회적 효용으로 소화하기 좋다. 즉 미학적 완성도를 뽑내는 작품들, 또는 문예적 가치를 논할 수 있는 대표적 고전 만화들 말이다. 오락성에 가장 강세를 두기 마련인 대중문화에서 기대하는 그저 그런 수준의 무게감을 크게 웃도는 명작들을 읊으며, 작품의 어떤 지점들이 미학적 완성도가 뛰어난 것인지 설명하는 모습이야말로 과시의 극치다. 과하면 “재수 없어” 보이는 것이 부작용일 따름이다.

『지미코리건』(크리스 웨어)을 펼치며 하이퍼텍스트적 비주얼 내러티브와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주제를 조화시키는 솜씨를 운운한다든지, 『샌드맨 연작』(닐 게이먼 외)을 펼치며 그리스신화, 셰익스피어, 현대 대중문화, 기타 모든 서사들을 이야기라는 큰 주제로 합쳐내는 진정한 현대 판타지의 걸작이라고 칭송하면 아마도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좌중을 제압할 것이다. 어쨌든, 이런 것도 만화를 좀 더 깊숙하게 즐기는 방법이다.



지미 코리건 ©크리스 웨어

간략히 살펴본 과정에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각 작품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적합하다. 사회적 무게감을 강조한 것을 장르팬으로 즐기려면 좀 더 어려우며, 공감대를 최대한 강조했는데 예술적 무게감으로만 접근하면 당장의 오락적 재미부터 상쇄된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 즐거움을 해석할 것인가, 그것부터가 이미 즐길의 과정이다.

### 즐거움을 찾아서

이런저런 화두를 꺼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처음에 나왔던 하나의 팁으로 압축된다. 즐거웠으니, 왜 즐거웠는지 스스로 질문해보시길. 스스로 만족할 만큼 찾아내면 훌륭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이들의 생각, 특히 전문적으로 평론을 하는 이들의 글도 참조하면 된다. 남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작품을 모두 즐겨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드는 것이 바로 만화를 더 “잘” 읽는 방법이다. **김지현**



# 누가 내 폰 값을 먹었을까

안지희 | 자칭 구글 전문가 | Liebe.so.einfach@gmail.com

‘17만원 갤럭시S3’. 이 한 마디로 통신3사는 초유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누구는 99만원을 주고 산 폰이 17만원에 팔린다니 그 분노와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다.

삼성 최고의 스마트폰이 17만원이라는 명제는 폰이란 원래 그 정도 하는 물건이라는 생각과 그동안 사기를 당해왔다는 인식을 남겨주었다. 눈 뜨고 당해왔다. 누가 계속해 쳐먹었고 너무 많은 폰값을 치러왔다. 잃어버리고 훔쳐가고 깨지고 부서졌다. 그 모든 고통의 역사가 이유를 찾았고 이제 종식을 얻은 듯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17만원으로는 어디에서도 최신 폰을 구할 수 없었다. 되려 가장 싸게 판다는 집에서도 버젓이 돈 백 만원으로 팔려 나갔다. 그 와중

에 아이폰5가 19만원이라는 말만 떠돌았다. 비난의 화살은 판매자에게 겨워졌다. 음식점이 망하면 폰 대리점이 들어섰고 동네슈퍼가 망해서 폰 대리점이 들어왔다. 한 거리에 몇 군데씩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마주 보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폰 하나 팔면서 백만 원씩 챙긴다는 것들. 만인의 분노는 죄다 ‘폰팔이’라는 사기꾼에게 향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핸드폰 값은 얼마이고 누가 얼마나 챙기는 걸까? 어떻게 해야 ‘호갱’이 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에 통신비와 통신 시장의 구조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 복잡함 속에서 오늘도 사람들은 대리점으로 향하여 호갱이 되고 만다.

할부정보	
모델	SHV-E250L
할부시작일	2012.10.08
전체할부금액	1,089,000원
할부개월	36개월
할부구금액	33,080원
잔여개월	34개월
잔여할부금액	1,033,400원
의무약정정보	
가입유형	무약정

흔한 호갱

## 핸드폰 요금의 두 얼굴

핸드폰 요금은 통신 요금과 기기값, 이 두 가지의 합이다. 이 두 비용은 이동통신사에서 일괄적으로 청구된다. 모든 비용이 통신사 요금으로 나타난다는 것,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한다.

새 휴대폰은 대부분 통신사 대리점에서 판매된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고르면 통신 계약을 맺고 기기값은 할부로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방식이다. 물론 요금은 한 청구서에 찍히지만 기기값과 통신요금은 엄연히 나뉜다. 그런데 이를 뒤섞는 것이 바로 보조금이다.

대리점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 통신사는 기기값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의 경우 가입비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 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지원금을 그냥 주는 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휴대폰과 함께 떠올리는 ‘24개월’ 등의 약정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이다.

만약 이러한 약정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지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바로 위약

금이다. 위약금은 흔히 벌금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된다. 고객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야 하는 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상으로 위약금은 지원받았던 금액을 반납하는 것일 뿐이다. 공짜로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 꼭 빼앗기는 것으로 느껴지는 금액이 위약금이다.

이렇게 기기에 대한 보조금을 통신사에서 받는 동시에 위약금에 의해 묶이게 됨으로써 기기 구매와 통신계약은 혼연일체가 된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까닭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이 고객의 유치로 이어지며 더 많은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통신요금에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충분한 이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고객에게 흔쾌히 제공한 몇십 만원은 2년 동안 통신요금으로 얻게 될 이윤에 비하면 푼돈인 것이다.

통신 요금을 더 따져보기 전에 보조금에 대해 더 생각해보자. 사실 휴대폰의 가격에 대해서는 출고가라 불리는 정가 외에는 알려지는 것이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갤럭시 S3 LTE 16GB 모델의 출고가는 96만 1400원이며 중급 정도로 알려진 폰들도 80만원을 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출고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사이에 거래 기준 금액이라 알려져 있다. 그런데 둘 사이에서 기기가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 기기 제조사도 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어떤 물건의 거래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어떤 건 그냥 할인판매일 뿐이다. 이처럼 통신사가 제조사한테서 얼마에 떼 왔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 통신사를 통해서 얼마짜리 기기를 얼마나 싸게 샀는지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이 굳이 약정까지 맺어가면서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사는 것은 그게 가장 저렴하게 폰을 살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자급단말기(보

급용 휴대폰)라 불리는 일부 중저가 모델을 제외한 기기들은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하면 출고가 거의 다 주고 사야 한다. 즉 국내에는 이동통신사와 독립한 '공기계'가 사실상 판매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건은 팔리는 것이 팔리지 않는 것보다 나은 가격으로 팔린다. 이는 팔리는 것보다 안 팔리는 게 나은 가격으로는 안 판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 폰 시장에서는 이러한 판단의 주체에 통신사도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 국내 제조사는 통신사에게 넘기는 가격으로 기기를 팔지 않으며 폐기처분 할지 언정 적정가에 기계를 풀지는 않는다. 그 안에 있을 어떤 입장과 계산에 대한 짚은 의혹이 느껴진다.

### 편리한 스마트폰

출고가, 보조금, 약정과 위약금으로 푹푹 뭉친 통신사와 제조사의 유착 구조는 휴대폰 시장 초창기부터 있어 왔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찮은 수준의 휴대폰이 몇십 만원에 팔려 나갔다. 그러나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 복잡하게 발전했고 문제는 더욱 깊어졌다.

요즘 판매되는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못하는 게 없고 웬만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가격도 그 이상이다. 또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데이터 통신은 필수이다. 2012년 기준으로 만 12세에서 59세까지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93%가 패키지 상품인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기본요금만 예전의 1만원대 초반 수준에서 2.5~5배 이상 커졌다.

과거의 약정은 그저 휴대폰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기본요금제건 월드컵 요금제건 그냥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서 폰을 쓰는 것이 예전 약정의 조건이었다. 따라서 의무적인 기본 비용은 월 만원 남짓이었다. 반면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받으

갤럭시노트2	LTE 72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출고가	1,089,000		
Price Bomb 할인	-490,000	-490,000	-391,000
할부원금	599,000	599,000	698,000
통신사 요금할인	- 528,000		
총 고객 부담금	71,000	71,000	170,000
(할부 부담금)	3,600	3,000	7,100
할부액상유급 이자, 만기이자, 수수료	75,000	75,000	79,100

려면 기본요금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데이터 요금제를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데이터 요금제와 관련한 지원금과 할인, 약정과 위약금이라는 게 매우 복잡하다. 얼마나 복잡한지 보통의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와 매월 내는 요금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사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62, 72 등의 요금제 이름이다.

가령 72요금제라고 하면 통신사 기준 72,000원 만큼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요금제는 72,000원이 아니다. 고객이 72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는 한 이 상품은 54,000원에 판매된다. 매월 18,000원의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할인 금액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곳에서 기기값 할인이라 설명된다.

고객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기기값인 '할부원금'이 432,000원인 폰을 72요금제 24개월 할부로 구매한 경우를 살펴보자. 매월 고객에게 청구되는 기기값은 부가세와 이자를 제외하고 18,000원이다. 그리고 72요금제에 대한 할인이 18,000원이다. 따라서 이 고객은 매월 72,000원만 내면 된다. 실상은 아니지만 마치 기기값이 사라져 공짜인 것처럼 보인다.

이 눈속임에 불과한 숫자놀음의 힘은 뜻밖에 강력하여 기기값과 통신요금 모두 적어 보이게 한

다. 기기값은 데이터 요금의 할인에 가려지고 데이터는 어쨌든 넉넉하게 제공받는 것이라는 위안을 준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LTE '62요금제' 가입자는 기본 제공량 중 음성통화는 68.0%(238분), 문자서비스는 28.6%(100건), 데이터통신은 56.7%(3.2GB)만을 사용했다. 넉넉하게 쓴다는 이유로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도 손해 보는 느낌이 덜하겠지만, 실제 사람들이 남기는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다. '남은 기본 제공량을 이월하고 이월된 양이 축적되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통신사에서 고분고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새로 생긴 '위약금3'이라는 제도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경우 위에서 본 데이터 요금제의 할인금액의 37~100%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24개월 약정 고객이 72요금제를 12개월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자신이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80%인 172,800원을 내게 된 것이다. 기기값 할부를 상쇄하는 것처럼 보였던 데이터 요금제 할인 위약금을 그대로 다 내기 싫은 고객들은 통신사와 기기에 꽂꽂여 있을 수밖에 없다.

### 누가 내 폰값을 먹었을까

'17만원 갤럭시S3' 사태 이후 뽀뿌라는 사이트가 크게 알려졌다. 온라인 대리점을 포함한 휴대폰 정보가 가장 많이 교환되는 사이트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폰을 구매한다. 이들은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솟아 있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폰팔이'를 마주하게 된다.

휴대폰 판매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스마트폰 한대를 팔아서 남길 수 있는 이윤은 100만원을 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



다. 휴대폰 보조금의 수혜 대상은 정해진 바가 없다. 즉, 그 보조금을 대리점이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폰을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데이터 통신 요금제의 눈가림이 추가된다. 또한, 대리점은 가입 고객이 내는 통신요금의 일부를 고객이 해지할 때까지 받는다.

스마트폰은 감가가 심한 상품이다. 과장을 섞어서 이 사회에서 값이 가장 빨리 그리고 크게 떨어지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17만원 갤럭시S3'는 아이폰5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삼성이 한때 만든 전략적인 가격이었다. 그 기간이 끝나자 갤럭시S3는 거짓말처럼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다. 다른 폰의 가격도 제조사 및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크게 요동친다. 이처럼 상당한 정보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스마트폰이 지금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때문에 대리점은 휴대폰을 조금 예전의 가격으로 판매하기만 해도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말하자면 스마트폰은 현재 많은 이득을 가장 쉽게 남길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다. 단지 물건을 떼와서 팔기만 해도 치킨집에서 닭을 몇십 마리 팔아야 남길 수 있는 이득을 올릴 수가 있다. 물건은 확실하니 걱정이 없고 시설 투자나 특수한 기술도 필

요하지 않다. 하루 50마리만 팔아도 괜찮다는 치킨 집에 비하면 훨씬 들어가기 쉬운 업종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휴대폰을 파는 '폰팔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시급제로 고용하는 곳도 있으나 영업직 폰팔이의 기본 고용방식은 성과제다. 하루에 두세 개만 팔아도 다른 일이나 아르바이트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완이 좋은 경우에는 몇 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경력이 쌓이면 받는 성과급도 늘어나며 내가 잘한다 싶은 경우에는 독립을 꿈꿀 수도 있다. 자신의 능력만큼 일하고 번다는 개념이기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거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제약의 근원으로 폰팔이를 지목할 수밖에 없다. 싸게 팔 수도 있는 폰을 비싸게 파는 사기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점들의 높은 이윤은 폰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독과점 통신사가 지배하는 유통구조, 뺑뚱기된 휴대폰 출고가, 가뜩이나 비싼데 더 뺑뚱기된 통신요금제, 그 말단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얼굴을 취하고 있는 것이 대리점에서 폰을 판매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휴대폰 대리점도 이미 포화 상태이긴 마찬가지다. 가장 생기기 쉬운 것이 휴대폰 대리점이지만 가장 망하기 쉬운 것도 휴대폰 대리점이다. 월급 주기 바쁘고 월세 내기 바쁘다. 그럼에도 폰 대리점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보이고 폰팔이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챙기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휴대폰의 생태계 속에서 그 둘만이 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통신재벌 3사'의 요금제는 큰 수준에서 동일하며 영업수익, 결합판매 요금수익, 영업비용, 인건비, 경비, 개별 유형자산 등 가격 산정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 답합 3사가 '부르는 게 값'인 것이다. 이들은 파사로

운 환경에서 고객을 돌려먹는 경쟁 속에 성장해 온 통신 산업의 대부들이다.

한편 지난해 3분기 삼성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 중 87%가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서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69.3%로, 이는 지난해 3분기 대비 91% 성장한 수치이다. 삼성 그룹 전체가 남긴 돈 9조 3197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5조 6300억원이 스마트폰에서 나왔다. 이 또한 국내의 파사로운 환경하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온 휴대폰 산업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진짜 폰값'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추정해볼 근거가 영 없는 것은 아니다. LG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옵티머스G의 출고가는 999,900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LG전자에서 만들고 동급의 스펙을 지닌 '구글넥서스4' 16GB 모델은 349불(한화 약 38만원)에 발매되었다. 이 폰이 나오자 통신사들은 하나같이 '국내 발매 불가'를 선언했다. LTE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도 명백했다. 어쨌든 폰이 그 정도 가격이라는 건 밝혀진 셈이다.

### 누가 사기꾼인가

이동통신은 사회적 필요이자 욕구이며 이는 점점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국내에는 지금 5,300만 회선의 이동전화와 있으며 이 중 스마트폰이 3,100만 회선이다. 이동전화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 비해 스마트폰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얻는 사회적 편의는 커질 것이며, 멸절된 사회인에겐 반드시 있어야 할 도구이며 통신 요금은 교통비보다 더 사회적인

비용으로 느껴질 것이다.

또한, 휴대폰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물건이다. 휴대폰은 곧 지갑마저 완전히 대체하여 그야말로 그것만 들고 다니면 되는 물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휴대폰은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며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왕후장상의 폰은 따로 없지만 천민의 폰은 있다. 누군가에게 월 5만원의 스마트폰 유지비는 제값으로 느껴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하물며 백만 원에 달하는 기기값은 말할 것도 없다.

여전히 95%의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폰을 산다. 다른 상품도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정보력과 컴퓨터 능력이 필요하다. 이 또한 어떤 계층에게는 의지의 차이일 수 있지만 어떤 계층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다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가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해야 오프라인 가격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다.

한편 '휴대폰 온라인 구매'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맞다. 가전제품을 백화점에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싸게 파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그 가격에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팔린다. 월세, 인건비, 판매량에서 차이가 있는 온라인의 가격이 오프라인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독점적으로 유통되거나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상품은 온라인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다. 즉 온라인 판매가 현저히 활발해진다 하더라도 제조사와 통신사의 제공이 밑으로는 떨어질 수 없다.

어쨌건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대리점이 있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판매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합법적

인 것 중에서 가장 사기스럽고 잉여스럽게 보이는 이들은 폰 시장이라는 거대한 잉여 지반하에서 생존해내고 있는 자들이다. 쓸데없이 비싼 것들이 있기에 이들이 먹고살 수 있다.

왜 우리는 다른 가전제품처럼 휴대폰의 최저가와 적정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까? 그리고 왜 얼마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통신요금을 매달 내고 살아야 할까? 문자 한 통은 왜 20원일까? 만약 폰팔이들이 제일 나쁜 사기꾼이라 생각된다면 그건 더 크고 나쁜 사기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리점에서 있는 사람만이 폰팔이인가. 사기를 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잘못이라는 속된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바로 호갱이다. **호갱**

특성	요금	서비스	장점	단점	대안
저렴한 요금	월 1,000원	기본 서비스	월간 요금 낮음	서비스 제한	대안 없음
고급 서비스	월 2,000원	프리미엄 서비스	서비스 다양	요금 높음	대안 없음
유연한 요금	월 1,500원	유연한 서비스	요금 유연	서비스 제한	대안 없음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다. 소비자가 구성원이 되는 비영리단체인 소비자협동조합의 하나인데, 여기서는 KT의 망을 기본료 3300원, 동일한 통화 요금 및 25% 저렴한 문자 요금으로 제공한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며 MVNO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스마트폰을 월 만원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싸다. 알뜰한 통신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통신사에게 그만 퍼주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통신사에게 압박을 넣어보자.



중립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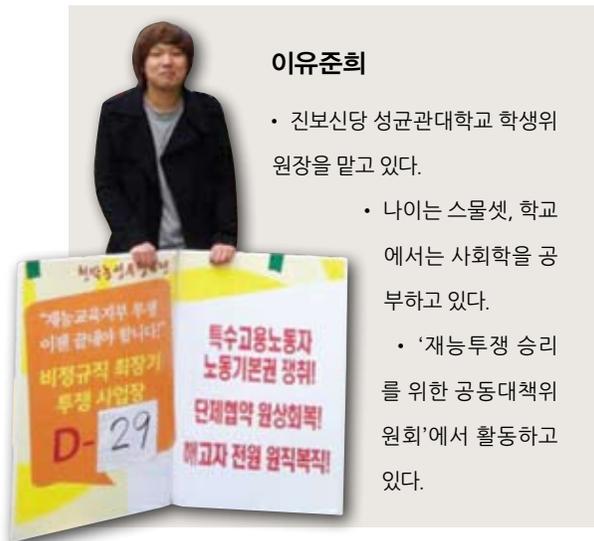
# “오젠키데스까? 와타시와 젠키데쓰”

## 재능투쟁 1900일, 당신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이유준희 | junijunhee@naver.com

### 이유준희

- 진보신당 성균관대학교 학생위원장 맡고 있다.
- 나이는 스물셋, 학교에서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다.
-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른들은 내게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곤 했다.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시절 그 비싼 학비에 학원비, 과외비는 물론 재수학원에 유학비용까지도 걱정 없던 친구들, 혹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부모님의 통장 잔액이 주가조작, 배임, 횡령 말고는 하는 게 없어 보이는 ‘회장님’의 주름살 마냥 쪼그라드는 것을 볼 때, 나는 “이 나라는 계급사회다”라고 분노했고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을 바꾸라’고.

나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았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달렸던 희망버스를 시작으로 나는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지

는 연대를 체험했고 그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체감했던 것이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은 수많은 사람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었다. 이를테면 오늘날 여성의 시민권은 누군가가 경마장의 달리는 말에 몸을 던지고 **에밀리 데이비슨(Emily Davidson): 1913년 영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며 경마장의 달리는 말에 몸을 던졌다.** 누군가는 단두대 위에서 “여성이 단두대 위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단상에 설 권리 또한 있다” **올림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했다. 실제로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고 한다.**고 외쳤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권리는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싸워 쟁취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나는 재능교육 지부와의 연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12명의 조합원이 만들어진 1900일에 가까운 이 투쟁은 대선후보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앞다투어 해결하겠다고 나서게 할 정도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고 비정규직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으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 기호 5번 김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대선 무대에 알려내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몇몇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투쟁하는 노동자와 이에 연대하는 우리였다.

그런 재능교육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저 높은 곳에 올랐다. 수십 미터 높이의, 바람이 위태롭게 불어와 사람이 들어있는 텐트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가로세로 3미터의 그 좁은 종탑에 올라서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내걸고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이 글에서 나는 연대가 어떤 의미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단식, 삭발, 천막농성 이제는 고공 농성까지 안 해본 것이 없는 재능교육 투쟁, 1900일에 가까운 그 무거운 역사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해보자.

### 1900일, 투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1900여 일을 싸워온 재능투쟁, 그 시작은 2007년이었다. 2007년 5월 17일, 재능교육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수수료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삭감되고 말았다. 교사들의 항의가 잇달았고, 당시 학습지 노조 재능지부의 임원들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노조는 회사에 수수료제도 개정을 위한 교섭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정비된 수수료제도로 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12월 21일, 새롭게 구성된 노조 지도부는 사측의 해고 협박 중지와 재교섭을 요구하며 재능교육 해화동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재능교육은 교섭에 응하는 대신에 수십 명의 구사대를 동원하여 천막을 찢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구사대와 용역 강패를 동원한 폭력은 현재 농성 중인 시청으로 옮겨가기까지 무려 14차례나 반복됐다.

이후 사측은 수업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故** 이지현 조합원과 **여민희** 조합원을 사실상 해고했다. 잇따라 2008년 11월에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유명자 지부장, 오수영 사무국장을 해고했고 뒤이어 **여민희**, **박경선** 조합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현숙**, **강경식** 조합원 등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고 그들의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 1970,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2013,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학습지 노동조합 재능지부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노동조합 인정, 둘째, 단체협약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 동상 옆에서, 재능교육 유명자 지부장

원상회복, 셋째, 해고자 전원복직이다. 재능투쟁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재능교육에 처음부터 노동조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는 재능교육지부에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내줬으며 재능교육 노사는 2007년까지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통해 노사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재 사측과 정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재능지부는 서울지방법정법원에서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고 외쳐야 하는 상황이다. 1970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면 2013년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 특수고용노동자?

####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그들

특수고용노동자란 사용자가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개인 사업자화 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노동

관계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사용자종속관계(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당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임금이 아니라 수당 혹은 수수료의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다. 대체로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같이 위탁 혹은 도급계약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고용과 같이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도급계약은 일정한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일정한 일 그 자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과 구별된다.의 형태이며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방송 작가), 계약 관계없는 알선의 형태(골프장 캐디) 등을 취하기도 한다.

이들은 실제 사용자와의 사용자종속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지위를 쉽게 부정당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할뿐더러 근로기준법,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법정수당, 휴일·휴가,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있다.

이런 여러 문제 중에서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기본권이라 하면 좁게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노동 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서부터 넓게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인권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에게 노동 삼권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모습.

그들의 생명과도 같으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와 교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권리 자체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파업은 언제나 불법이다. 개인으로는 거대한 회사에 맞설 수 없는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서로 뭉쳐서 목소리를 낼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의 사전적 의미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의 형태는 점차 확산해가는 추세다. 이를테면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97년 이전의 사회에서 비정규직 천만의 시대로 진행되어 온 것처럼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또한 단기간에 2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 전반의 고용형태로서 확장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고용형태는 왜 만들어졌는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분명히 ‘노동자’인데 왜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이 덧붙여 차별받는가?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 낸 일시적 ‘병리 현상’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제도의 목적, 그 자체에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탄생은 자본주의, 특히나 노동 유연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오히려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자본은 좀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자본가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그 속성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의회, 혹은 국가는 자본을 위한 수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낸다. 이 또한 몇몇 나쁜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처음 사회적으로 등장한 이후에 투쟁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

하고, 수배당하고, 구속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긴 쉽지만, 자본의 탐욕에 저항할 수 있는 무기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특징은 자본가들에게는 너무나 탐나는 것이었고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했다.

그리고 이제는 특수고용노동자다. 어렵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는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그러한 권리 자체를 부정당한다. 노조 파괴를 위해 직원들을 사찰하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노조 파괴 시나리오’까지 작성하는 자본들에게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달콤한 꿈이었을까.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히 재능교육이라는 한 개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전체 학습지 교사, 그리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를 넘어서 불안정한 고용 현실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리고 인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이 사회 탓에 고통받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 그리고 대학생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재능교육이 처음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저 높은 곳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대의 물결 또한 이어지고 있다. 각종 정치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잇달아 총탄농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학생, 시민, 노동자들의 연대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투쟁에 함께해야 하는가’이다. 왜 우리 대학생들은 이 투쟁에 연대해야 하는가?

4.19 혁명,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것은 대학생들이었다. 선거 때마다 20대로 향하는 기대와 선거 후 투표율을 본 기성세대가 20대에 대해 쏟아내는 비난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다. “선배들은 저런 일들도 해냈는데 너희는 투표 하나 못하냐”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독자는 재능교육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청년은 사회로부터 두 가지 희생을 요구당한다. 경제적 성공을 위한 현재의 희생과 사회에 참여—사회, 국가 등 대의를 위한 행동—를 요구받기 때문에 생기는 희생이다. 동시에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경제적 성공과 사회에 대한 참여를 욕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한 개인이 진정한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짜 연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에 대한 욕망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학생들의 삶은 어떠한가? 청년들의 삶은 어떠한가?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는 선배들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취직이 보장되었고, 굳이 대학 졸업장을 따지 않아도 먹고사는 데에 큰 걱정이 없었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크레인에 올랐던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

다. 남한 자본주의의 황금기 속에서 성장은 지속되었고 대의를 위해 희생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아니 오히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 명문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이 죽을 만큼 어렵고, 50대의 취업률이 20대 취업률보다 높은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우리는 끝없이 불안해하며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루를 그렇게 ‘버틴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희생에 대한 욕망을 거부하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높은 등록금과 치솟는 실업률 속에서도 열심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혹은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나의 모습을 욕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요구하는 이 사회에 맞서 같은 현실에 처해있는 학생,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진정한 연대는 희생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나의 고민, 나의 삶을 소중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노동자들의 투쟁 같은 사회적 문제보다 자신의 고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의’와 자신의 문제를 구분 짓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 시혜와 동정을 넘어서 연대로, 동지로

나는 재능교육 투쟁에 2012년 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연대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도 재능교육 농성장을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었으나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다. 연대라고 부르키엔 부족했다.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에 몇 번 농성장을 찾았을 뿐이지 그것을 나의 문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재능교육 지부의 유명자 지부장님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굉장히 많

이 바뀌었다. 지부장님은 학생들이 농성장에 찾아오면 “불쌍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도와주러 오는 거로 생각하면 오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굳이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 또한 신문을 통해 재능교육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연대를 시작했기에 사실은 불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지부장님은 우리가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동지로서’ 연대하기를 바라셨다. “너희도 나중에 다 노동자”라며 사측과 교섭상황에서의 전략·전술(?)을 알려주셨다. 투쟁에서도 단순히 연대단위라는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주체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투쟁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열어놓고 이야기했다.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고, 재능아웃 플래시몹만 추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지부장님은 연대하러 오는 이들을 정말 함께 투쟁을 만들어나갈 동지로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대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학생들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기 마련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그래도 우리 때문에 왔는데’, 학생들은 ‘그래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인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문제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투쟁사업장을 올바르게 이끌고 학생들의 연대 또한 올바르게 설 방법이다. 그래서 지부장님은 연대하러 온 학생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해하셨다. 그리고 투쟁에 연대하는 이들이 원칙과 방향을 지키며 투쟁할 것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적극 이야기하라고 당부하곤 하셨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재능교육 투쟁에 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등록금 문제, 대학의 기업화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임을 깨닫고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학습자 교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합



재능교육 투쟁 1500일 집회에서 재능아웃을 추는 청소년, 청년, 학생

계한다는 것이지 대학생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 착하게 사는 것, 혹은 올바르게 사는 것

재능교육 투쟁에 연대하기 전, 내 꿈은 검사였다. 검사 중에서도 ‘착한’ 검사였다. 치열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한 뒤 로스쿨을 거쳐 검사로 임용되어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저 대기업들을 박살 내겠다는 꿈은 놀기 좋아했던 나를 공부에 전념케 한 원동력이었다. 착하게 사는 것, 착한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것 혹은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빈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란 삶이었다.

하지만 재능교육 투쟁은 나에게 ‘착하게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선한 개인은 빈번히 구조를 넘어서지 못했고 오히려 그 선한 의지가 이 야만의 시대를 지속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를 보는 것, 또 이 구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선한 의지를 왜곡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재능교육 투쟁은 이러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유영자 지부장

깨달음을 나에게 던져주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었다.

검사를 꿈꾸었던 나는 이제 다른 방식의 삶을 고민하고 있다. 착하게 살고 싶었던 나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올바르게 사는 것을 고민한다. 나는 불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도우러 오는 선한 개인이 기보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윤보다 인간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이들의 동지가 되고 싶다.

### “오겐키데스까? 와타시와 겐키데쓰”

흔히 노동자들이 크레인에 오른다든가, 철탑에 오른다든가 하면 사람들은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저런 필요가 없는 삶이라며 안도하고, 먼저 거리를 두고 그저 동정의 마음을 보내곤 한다. 하지만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과연 그런가. 우리의 삶은 과연 다행스러운가.

오히려 우리는 누구나 고통받고 있지 않나. 배제와 차별을 겪고 있지 않나. 어떠한 사회적 구조에 의해 억압받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그저 꼭 참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탑 위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천막농성을 하진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행복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과 끝없는 스펙경쟁에 내몰려있고 청년들은 청년실업이라는 늪에서 허우적대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불안해한다. 인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는 재능교육 해고노동자만이 아니라 나 또한 옥죄고 있기에 그들은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투쟁에 연대한다.

얼마 전 영화 ‘러브레터’가 재개봉했다고 한다. 나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종탑 위의 농성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다.

“오겐키데스까?”

당신의 삶은 과연 괜찮습니까.

“와타시와 겐키데쓰”

우리는 괜찮습니다.

투쟁하고, 연대하고 있기에, 행복합니다.



## 고대문화 2012년 하반기 교지대 결산보고

1. 제작비, 외부필자 원고료, 편집회의 진행비, 도서구입비 및 매체구독비, 통신 및 우편발송비, 자치언론기금만이 교지대에서 사용됩니다.
2. 교지대의 사용내역은 고려대학교 학생지원부에 의해 관리되며, 관련 영수증은 학생지원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지면상 전하지 못하는 결산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보고됩니다.

### 고대문화 수입지출 내역

날짜	적요	수입	지출	잔액
	이월금	5,930,290		
2012학년도 2학기				5,930,290
2012-10-04	안암(11,205명*1,900원)	21,289,500		27,219,790
	세종(3,323명*1,900원)	6,313,700		33,533,490
2012-11-02	2012년 가을호 제109호 제작비 지급		11,919,580	21,613,910
2013-01-11	2012학년도 2학기 자치언론협의회 기금 지급		4,140,480	17,473,430
2013-02-14	2012년 겨울호 제110호 제작비 지급		13,205,465	4,267,965

# 독자와의 만남

- 고대문화 2012 겨울호 평가회



혜진 | 수습위원 | prifairy@naver.com

모든 일에는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 실현되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문화는 지향성을 갖고 그 지향성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해야 하는 고려대학교 교지다. 그런 점에서 기획의 취지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고대문화의 목적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인 만큼, 편집실 안에서 오가는 내부의 이야기와 평가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다섯 명의 독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섯 명의 의견을 모든 독자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평가회를 통해 모든 독자의 의견을 수취화, 계량화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현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므로, 설문 등의 방식으로 다수의 의견을 단편적으로 듣는 것 보다는 적은 사람이더라도 자세한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기훈** (미디어 06)  
아직도 학교 다니는  
알바연대 대학생  
사업팀장



**엄지** (환경생태공학 10)  
불안정과의노동자,  
격월간 잡지 편집장,  
20대



**민지** (경영 11)  
학교 밖 생활에만  
열심인 대학생



**리아** (철학 12)  
아비꼬를 좋아하는  
지나가던 기사생



**부금** (사회 13)  
아직도 고대가  
신기한 새내기

**고대문화 (이하 '꼬')**: 겨울호 고대문화를 읽자마자 떠올랐던 생각이나 느낌을 말씀해주세요.

**부금**: 대학생들이 쓴 글인데 내용 자체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놀랐어요. 노동자라든지 학생회 선거라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엄지**: 선거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좌담회 때문에 다시 읽어봤는데 꼼꼼히 읽기 힘든 느낌? 전체적으로 선거 이야기 비중이 많았던 거 같았어요.

**기훈**: 마음먹고 김소연을 밀었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어요. 대선에 대해 하나의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여겨졌고 조금 용기 있는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 딱 보면서 바로 든 느낌은, 급진적이다?

**꼬**: 겨울호 고대문화에서 가장 좋았던 기획은 어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가장 좋았나요?

**엄지**: 저는 노동기획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았어요. 일단은 미화노동자 문제를 쓰레기라는 일상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시도가 신선하다 생각했어요. 앞쪽에 전태일화보 등의 노동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장엄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무겁고 진지한 것 같았는데, 이 기획은 일상에서 깊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접근해서 노동문제를 쉽게 풀어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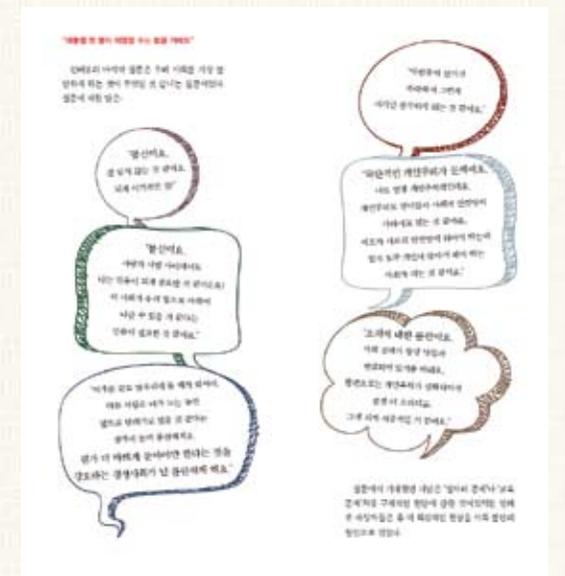
**기훈**: 고대문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기획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소

한 것들을 지적해주면서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글들이요.

**부금**: 저도 가벼워서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내용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지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에 관련된 사회 구조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만 하고 끝난 것 같아서 급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리아**: 저는 문화기획이 좋았어요. 힐링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고 알아서 잘 하길 바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힐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부금**: 저는 아직 대학교 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총학생회 선거과정에 대한 글이 되게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학생회 선거과정이란 달라서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인터뷰 기획에서 '무엇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말풍선으로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을 모아놓은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제가 느끼는 그대로가 담겨 있어서, ‘내가 느끼는 것을 사람들도 느끼고 있구나.’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민지:** 선본기획이 한계가 많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경영대생이라 학내자치활동들이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선본 등이 남의 일이었는데 자세하게 볼 수 있어 좋았어요.

**교:** 그렇다면 겨울호 고대문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기획은 어떤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랬나요?

**엄지:** 저는 선본기획이 제일 별로였어요. 글쓴이도 계속 ‘자기는 하나의 선본밖에 안 뛰어봤고 끝까지 뛰어보지 않았다’고 이 글의 한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기획 자체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선본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데, 만약 세 선본 각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민지:** 전태일 중간화보요. 다들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을 뿐더러, 너무 박근혜 후보랑 문재인 후보를

비판만 하고 대안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대안 없는 비판은 비난에 불과하지 않나 싶었어요. ‘난 이거 싫어’였지, ‘그래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니까.

**기홍:** 역사평은 너무 뻔한 이야기였고, 총학생회 선본 기획은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유람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얘기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의식을 던질락 말락 던질락 말락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집 첫 번째 인터뷰. 글이 굳이 그렇게 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 겨울호 고대문화의 구성이었던 학내기획/특집(대선)/사회(봉사)/노동/문화(힐링)/영화평/서평/역사평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민지:** 총학 선거와 대선이 겹쳐 있었잖아요. 선거 특집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좀 다양하게 접근을 했다가, 뒤에서는 또 박근혜 비판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의아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하나의 주제로 관통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지:** 저는 오히려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거 기획으로 지친 마음을 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고대문화는 전체 학우들에게 읽히기를 희망하는 잡지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얘기만 썼다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학우가 읽기엔 힘들잖아요. 유행이 되는 힐링이나 영화평 같은 것들이 고대문화를 더 집어 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주제를 가볍게 건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리아:** 저는 선거 특집이었더라도 사회나 문화 같

은 방향으로도 다뤄야한다고 생각해요. 선거특집이라 해서 선거 이야기만 많이 나오면 그거에만 집중하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일 것 같아요. 하지만 노동·사회·문화는 괜찮았는데, 영화평·서평·역사평은 조금 붕 뜨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선거 쪽으로 주제를 트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교:** 겨울호 고대문화의 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엄지:** 뭘 나타낸 거예요?

**교:** 선거 기호를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선거에만 갇히지 말고 그 너머를 생각하자 이런 의미예요.

**엄지:** 설명 들으니까 알겠네요.

**리아:** 그런 설명을 한 문구 정도 덧붙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 표지에 사진이 들어가는 것과 그림이 들어가는 것 중 어떤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민지:** <대학내일>이나 <캠퍼스> 같은 가벼운 잡지가 보통 사진을 쓰잖아요. 고대문화는 가볍게 읽는다고보다는 보면서 생각도 해야 하고 그 안에 깊



은 의견이 담겨있는데, 사진을 쓰면 가십 정도로 여겨질 것 같고 추상적 기호를 쓰되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금:** 그냥 깔끔하게 기호로 표현해서 책에 대해 궁금증을 더 유발하게 되고, 어렵듯이나마 책 내용에 대해 암시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교:** 고대문화 모토가 ‘세계를 변혁하는 대한언론’인데 고대문화가 ‘중립을 표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아:**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고대문화가 진보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읽기 쉬운 매체들은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우파적이예요. 이런 매체가 하나라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엄지:** 당연히 언론이라면 표방하는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문도 사실 팩트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기자들이나 언론사의 의견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언론이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이 진보라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특집 첫 번째 인터뷰에서 개인주의, 소외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 자체가 이런 지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립을 표방하는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스펙 쌓고 극복해내자!’ 이런 결론을 주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적인 것에 대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학우들한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향성이 분명한 만큼 그걸 나타내는 방법을 좀 잘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진보나 노동 이야기를 하면 어렵고 좀 딱딱하고 무섭

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우들이 보는 잡지인만큼 지향성은 뚜렷하지만, 나타내는 방법은 좀 더 쉽고 재미있고 말랑말랑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타협이나 중도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같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노동자들이 깃발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사진, 이런 것은 투쟁의지를 고조시킬 수 있긴 하지만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때는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소연 후보를 인터뷰한 건 정말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 간혀있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데 (후보가) 쉽게 얘기를 잘 해주셔서 후보가 가진 생각과 거기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건 지향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반면에 전태일을 회고하는 부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굳이 이렇게 비장하게 할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소설 어머니가 나온 다큐멘터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 같이 전태일 열사의 행동을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민지:** 저는 읽으면서 혼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생각 안 해봐? 너는 왜 현실에 안 주해?'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것이 많았어요. 문체 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저는 투쟁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이런 단어를 좀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김소연 후보 글을 읽으면서는 '아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헌데 제가 친구들이랑 고대문화를 이야기해봤을 때 "그거 학교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야" 라

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빨갱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느낌도 느껴지고, "그거 왜 읽어?"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막상 시각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렇게 극단적이거나 이상한 것도 아닌데, 뭐랄까 이미지 마케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읽는 사람들만 읽고, 학내 학우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나쁜 쪽으로 알려져 있어서 안타까워요.

**기홍:** 저는 언론의 중립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언론이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방향성을 갖고 글을 쓰는 건데, 고대문화가 그 자리에서 진보적인 흐름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글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 바람직한 학내 자치 언론으로서 고대문화가 가져야 하는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엄지:** 학내 언론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아요.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읽는 매체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학내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내언론이라고 해서 스스로 검열하거나 어떤 틀에 갇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민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이 있고 이런 시각을 대변하는 매체는 많지 않잖아요? 정식 매체인 고대문화에서 다뤄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지금 이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학생은 학교에 다니긴 하지만 밖의 일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사회문제를 다루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교:** 전반적으로 겨울호 고대문화에서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리아:** 너무 어렵게 서술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사건을 요약하기만 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특집 세 번째 글, 역사평 같은 글들이요. 예를 들면 독후감을 쓸 때 책의 줄거리와 의견이 적절히 섞여야 하잖아요. 헌데 이 두 글은 줄거리만 있고 의견이 얼마 없는 느낌이어서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기홍:** 어려운 글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주로 1, 2학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지면이 짧아서 그런지, 비약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치밀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언론 고대문화 편집위원회'이니만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언론인 것 같아서 고대문화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문화가 잘 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엄지:** 내용이 깊다고 해서 글이 어려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깊은 내용을 쉽게 담아내는 것이 잘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난항을 겪다가 안정화된 느낌이에요. 몇 번 전 호들은 내용이 그렇게 깊지도 않으면서 글은 안 읽힌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수준을 그쪽에 완전히 맞춰 하향해줄 수는 없겠지만 신경을 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흥:** 이런 자리들이 더 대규모로, 더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언론이라면 '나 잘났어!'라고 책 내고, '읽든 말든 상관 안 해'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읽길 원하는 것이니깐,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집 글들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자.'라는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고대문화 토론회 같은 것을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공계생들도 읽는데,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나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이공계학우들이 읽기에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언제 사람인지 헷갈리는

처음 좌담회를 기획했을 때의 취지는 '독자와의 소통, 의견반영' 정도였다. 하지만 막상 평가회를 진행해보니 '해야 하는 일'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내부의 의견과 유사한 독자의 의견들을 들으며 신기하고 뿌듯하기도 했고, 내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독자의 의견을 들으며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글의 깊이를 쌓는 것'과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전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문화**

# 고대문화 봄호를 평가해주세요

**'독자와의 만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학번, 나이, 학과 무관, 고대문화 독자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읽어주신 분도 이번에 처음 찾아주신 분도 모두 환영해요.  
고대문화 2013 봄호를 읽은 후 평가회가 진행됩니다.(1~2시간 정도 소요)

**신청 [komun@komun.net](mailto:komun@komun.net), 010.9797.8317 (편집장 시웅)**

소정의 참가비(2만원)를 드립니다.



# 평범한 노동자의 세상을 꿈꾸다



에서 | 수습위원 | yeseoji92@gmail.com

고대문화편집위원회(이하 고대문화)는 대선 2주 전에 배포되었던 겨울호 특집 4번째 글 「투쟁하는 모든 민중의 이름을 모아 - 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소연을 만나다」에서 기호 5번 무소속 김소연 후보를 인터뷰하였다. 이 기획에 대해 '왜 하필 김소연 후보일까?'라는 의문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 특집에서 고대문화는 유력 대선후보들이 등록금·취업·불안정노동 등 대학생이 처해있는 문제들의 근본을 직시하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비판은 유의미하기 어려우므로 김소연 후보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소연 후보는 스스로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 계층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자의 대변인'도 '대표자'도 아닌 '한 사람의 노동자'였다.

지난 대선에는 두 명의 '노동자 대통령 후보'가 있었다. 기호 5번 김소연 후보와 기호 7번 김순자 후보였다. 고대문화는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변혁모임'이라는 단체에 주목하였고 여기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소연 후보를 소개하는 것이 더 좋다고 결정하였다. 김순자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데에는 진보신당 내부 문제로 불출마가 예정되어 있다가 돌연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게 된 만큼 시기상의 문제도 있었다. 특히 '변혁모임'이 기존 진보정당들이 퇴색되거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걸고 나섰기에 더욱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고대문화가 소개한 김소연 후보와 또 한 명의 노동자 대통령 김순자 후보의 선거운동에는 아쉽게도 많은 한계가 있었다. 김소연 캠프는 각

지의 투쟁 사업장들(현대차, 한진, 유성, 쌍용차 등)을 돌아다니며 자본의 폭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그들의 선거 운동은 진정성과 열렬함이 돋보였다. 그러나 캠프의 외침에는 '우리 사회는 이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는 통렬한 비판은 있었으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고쳐야만 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그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우리의 정치'라는 지나치게 거대해 보이는 구호와 '재벌 재산 몰수' 등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공약을 내세웠을 뿐이다.

김순자 캠프는 이 점에서 김소연 캠프를 앞섰다. 그들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계층 중에서도 특히 청년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김순자 후보는 TV 토론회에 나와 옆자리에 앉은 김소연 후보와 달리 '유급안식년'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쉬운 수직화된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여전히 요원하기 그지없는 급진적인 공약들을 내세우면서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오히려 인형 탈을 쓰고 춤을 추는 등 유희된 선거운동 방식으로 자신들의 급진성을 포장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 었다.

김소연 후보 0.05%(16,687표), 김순자 후보 0.15%(46,017표)로 두 캠프는 어찌보면 처참한 득표율을 마주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그들의 한계를 모두 차치하더라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많은 유권자가 유력 정당의 후보들에 치중하느라 그 뒷번호의 후보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아

마 김소연·김순자 두 후보가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유권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어쩌면 출마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여기에는 그들을 철저히 외면했던 기성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한몫하였다. 그리고 역대 후보를 받는 유력 후보들과 달리 자금난에 쪼들려 선거 운동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두 후보의 구호마저 공색한 득표율에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대선은 '달걀로 바위 치기'일지라도 길고 긴 투쟁의 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완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웠지만, 가능성이 보였다. 예전 대선에서는 평범한 노동자의 출마도, 체제 자체를 바꾸자는 구호도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변혁을 위한 첫 발자국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한계가 있었음에도 2017년 대선을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그때쯤이면 '노동자 대통령'의 선거 유세 현장을 무심히 지나치는 이들이 드물기를 기대를 해본다. **박주원**

# ‘X같은 CJ의 문화독점’



령선 | 편집위원 | lalilulelu@gmail.com

가끔 심심할 때 일베에 눈팅을 하러 간다. 그러다 하루는 ‘X같은 CJ의 문화독점’(X는 자신의 본능대로 따라 읽으면 된다)이라는 강렬한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추천 수도 꽤 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진보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글이 일일베스트로 갔지?’라고 생각하면서 클릭했다.

아니나 다를까 글은 ‘깡통 진보’ 일베 사이트에서 진보 사상을 비하할 때 쓰이는 말. 유사한 어휘로 ‘춧볼 좀비’가 있다. 사상이 사람들에게 잘 팔린다고 해서 이를 장사에 써먹는 CJ가 나쁘다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대선 두 달 전 개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문재인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며 ‘깡통 진보’를 퍼뜨리는 데 CJ의 독점이 한몫했다는 식이다. 대다수 일베글이 그렇듯이 ‘왕’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일베사의 분석에 일면 동의되는 부분도 있었다. 전국에 800여 개의 스크린을 소유한 CJ CGV가 없었다면 <광해>의 천만 관객이 말이나 되느냐, CJ의 힘이 아니었다면 <광해>의 대중상 15관왕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다.

사실 개별적인 콘텐츠가 던지는 메시지 그 자체는 모든 것이 상품인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속에서 문화상품에 담긴 비판적 메시지는 본래 의미가 아니라 문화상품을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 양념으로 기능하게 된다. 투자-제작-배급-상영 3단계를 모두 담당할 CJ는 <광해>를 어떻게든 대박 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광해>는 대선이라는 시기에 리더십과 덕망 있는 지도자를 열망하는 대중들의 판타지를 채워줄 수 있게끔 잘 팔릴 상품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그 판타지에 광해군이 있든 안철수가 있든 오바마가 있든 상관없다. 일베의 노심초사와 상관없이 대선은 박근혜의 승리로 끝났다.

잠시 탄소리를 했지만,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CJ는 영화뿐 아니라 방송, 공연, 게임 등의 분야를 인수·합병하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기업으로 집적된 자본은 발전된 기술로 시장 지형을 바꾸고 독점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기술은 항상 더 큰 자본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사상 최초로 High Frame Rate 3D로 촬영된 <호빗>은 콘텐츠 제작 기술 혁신의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이전의 두 배가량인 초당 48프레임의 기술을 구현하는 이 영화를 상영하려면 극장에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상영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바타>로 인해 극장에 3D 시스템이 대거 구축된 지 3년 만에 CGV가 77개, 롯데시네마가 45개의 상영관 장비를 교체하였고, 동시에 이 급속한 변화를 잘 빠르게 따라갈 수 없는 소규모 상영관의 수도 늘어났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X같은’ 결말은 하나의 기업이 독점 권력을 구축할수록 점점 콘텐츠를 그 기업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 번 생산된 콘텐츠는 그대로 복제가 가능하므로 콘텐츠 사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추가생산이 싸게 먹힌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꾼의 기본 심리 아니겠는가. 제작비용이 줄어도 판매단가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비극은 <광해>처럼 손해 보지 않을 정도로 상업성을 가진 아이템만이 생산되는 반면 도전적이고 차별화된 소재는 외면당하

는 현실이다.

경제와는 뭔가 다른 아우라를 풍겨야 할 것 같은 문화가 시장논리에 흡수되어버린 모습은 어느 순간 극장을 가려고 하면 주위에 CGV밖에 안 보이게 되는 불편한 진실을 탄생시킨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걱정해야 하는 것은 모든 문화를 화폐적 가치 순대로 정렬시키는 논리 그 자체가 아닐까. 돈이 안 되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거대한 문화 산업의 시장 지배가 기술로 정당화되는 세상 그 자체 말이다. 본문

쿵쿵. 어디서 봄냄새가 난다.

111호 잘 읽으셨나요?

112호는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서용-

영화 '러브레터'를 여러번 봤다.

눈에 쫘 봄이다 !!

- shining

방학하고 싶다.

-희재

바쁘고 힘든 겨울이었지만 정말 '재미'가 있었다.  
시속되었으면 좋겠다. 재미도, 깨달음도, 감정도

-능혜-

나는 이제껏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밀어내며 몽니를 부리고 있었다.  
그래도, 미안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앞으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  
고대문화에 써낼 생각은 그만둘 것이다.

봄호를 만드는 겨울이 길었다.  
민트, shining, 리리루레루, 보영, 희재,  
혜전, 하늘 그리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 예서 -

시에시에에

lalilululu

다들 고맙습니다

-보영-

도시 생활 기간은 인간적으로 너무 짧다.

연장을 해도 짧다.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히..

거슬린다.

그래서 나는..... 장기연체자가 되거나 책을 산다.

- 상습연체자 ㅋㅋ

